

석사학위논문

기독교 창작 무용
『Born-Again』에 대한 연구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하 진 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 무용
「Born-Again」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Work,
「Born-Again」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하 진 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 무용
「Born-Again」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Work,
「Born-Again」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하 진 선

하진선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안 신 희 (인)

심 사 위 원 박 영 애 (인)

심 사 위 원 김 남 용 (인)

국 문 초 록

기독교 창작 무용 「Born-Again」에 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하 진 선

본 연구는 기독교 예술 창작 무용 「Born-Again」에 대한 연구로서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의 의미와 구조에 관해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자는 엘빈 에일리의 작품 《Revelation》 1막에 있는 ‘Fix me Jesus’에서 나오는 음악과 가사에 감흥을 받았고 또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세우심’ ‘의지’를 느꼈다. 작품 속 기도의 형상은 안무자로 하여금 깊은 묵상을 하게 하였고, 「Born-Again」의 창작에 있어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소재를 확정하게 되었다. 또한, 인류의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에서 온다는 주제의 표현을 자아내고자 하였다.

「Born-Again」은 기독교 신앙에 유무를 떠나 태어난 이후 ‘실수-죄의식-용서-죄-회개’로 수없이 반복되어 이어지는 죄 속에서도 나약한 인간이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해석하여 상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관객들에게

상상을 통해 공감 되어질 수 있게 유도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Fix me Jesus'의 종교적 의미를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안무를 분석하고 「Born-Again」의 추상적인 주제와는 다르게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독교 특성을 가진 무용 작품이나 안무가들의 영상을 참고하여 학술지 논문, 기독교 관련 잡지와 인터넷 자료 등을 병행하여 분석 연구하였다.

작품의 구성은 프롤로그와 2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에 따라 달라지는 시점의 흐름을 묘사하여 안무 의도와 내용, 모티브, 조명, 음악, 움직임, 의상, 영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프롤로그에서는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직관적인 표현방식으로 의도하여 소품을 포인트로 이용하여 관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1장에서는 죄를 짓는 공간과 기도하는 공간의 패턴으로 나뉘어 반복되는 죄와 신의 용서에 대한 인간의 상반되는 감정을 표현하여 이중적인 이미지의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몸과 몸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인 바디컨택(Body contact)으로 감정선을 표출하였다. 2장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더 부각해 과거에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하여 회상하는 장면으로 회개와 갈망의 감정을 움직임의 언어로 담아 작품의 흐름과 주제 및 내용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장면으로 담았다. 죄와 죄의식의 과정에서의 심리적 내적 갈등과 극적인 표현을 위해 조명사용과 크고 많은 동선의 이동을 사용하고 영상으로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며 마무리하였다. 에필로그에서는 죄를 짓고 다시 죄 사함을 받는 반복적인 패턴이 인간의 삶 속에 순환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약한 인간을 이미지화시켜 표현하려고 설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Born-Again」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시선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작품을 진행하였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성경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이미지를 작품화하였다.

【주요어】 기독교 예술창작무용, 회심, 거듭남, 회개, 용서, 계시, 회복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II. 작품의 이론적 배경	5
2.1 Alvin Ailey의 《Revelation》	5
2.2 ‘Fix me Jesus’에 나타난 종교적 의미	8
III. 연구작품의 개요	17
3.1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17
3.1.1 안무 의도	17
3.1.2 작품 내용	19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19
3.3 작품의 배경 및 모티브	21
3.3.1 성경적 배경	21
3.3.1.1 돌아온 탕자	21
3.3.1.2 가인과 아벨	22
3.3.2 모티브	23
3.3.2.1 주기도문	23
3.3.2.2 트라이푸디엄(tripudium)	24
3.4 작품의 구성요소	25
3.4.1 오브제	25
3.4.2 음악	26
3.4.3 의상	30

3.4.4 조명	34
3.4.5 영상	36
IV. 연구작품의 분석	37
4.1 프롤로그	37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37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7
4.1.3 음악	39
4.1.4 무대장치 및 조명	40
4.2 제1장 : 달콤한 열매 (죄)	41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41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42
4.2.3 음악	45
4.2.4 무대장치 및 조명	46
4.3 제2장 : 하늘에 대고 쓰는 편지	51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51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52
4.3.3 음악	57
4.3.4 무대장치 및 조명	58
4.4 에필로그 : 일상에 작은 부활	61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61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61
4.4.3 음악	63
4.4.4 무대장치 및 조명	64
V. 결 론	65
참 고 문 헌	67
부 록	70
ABSTRACT	72

표 목 차

[표 3-1]. 작품의 구조	20
[표 3-2] 작품 의상에 적용된 색의 심리적 연상	31
[표 3-3] 의상의 구조와 의미적 목표	32
[표 4-1] 등장인물 기호 및 동선과 방향 색	39
[표 4-2] 상반되는 두 개의 생각	41

그림 목 차

[그림 3-1] 오브제의 상징적 의미	25
[그림 3-2] 무용수 1 의상	32
[그림 3-3] 무용수 2 의상	32
[그림 3-4] 무용수 3 의상	33
[그림 3-5] 의상 페인팅 작업	33
[그림 4-1] 감춰진 욕망	37
[그림 4-2] 인간의 양면성을 표현한 장면	37
[그림 4-3] 신을 의식하는 모습	38
[그림 4-4] 선함과 악함의 공존	38
[그림 4-5] 프롤로그 동선	38
[그림 4-6] 프롤로그 조명	40
[그림 4-7] 이성과 감성의 공존	42
[그림 4-8] 동선 1	42
[그림 4-9] 개인 중심적 욕망	42
[그림 4-10] 동선 2	42
[그림 4-11] 트라이푸디엄의 상징적 이미지	43
[그림 4-12] 동선 3	43
[그림 4-13] 간교한 속삭임	44
[그림 4-14] 동선 4	44
[그림 4-15] 죄로부터 변형된 형태	44
[그림 4-16] 동선5	44
[그림 4-17] 죄의 증폭	45
[그림 4-18] 동선 6	45
[그림 4-19] 조명 1	46
[그림 4-20] 조명 2	47
[그림 4-21] 조명 3	48
[그림 4-22] 조명 4	49
[그림 4-23] 조명 5	50

[그림 4-24] 조명 6	50
[그림 4-25] 조명 7.....	50
[그림 4-26] 네가 어디 있느냐?	52
[그림 4-27] 동선 1	52
[그림 4-28] 빛 가운데 죄악을 발견하는 모습	53
[그림 4-29] 동선 2	53
[그림 4-30] 의지하며 바라봄	54
[그림 4-31] 동선 3	54
[그림 4-32] 죄인의 기도	54
[그림 4-33] 동선 4	54
[그림 4-34] 옛사람의 마음	55
[그림 4-35] 탄식하시는 성령님	55
[그림 4-36] 동선 5	55
[그림 4-37] 죄 사함의 은혜	56
[그림 4-38] 동선 6	56
[그림 4-3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56
[그림 4-40] 동선 7	57
[그림 4-41] 조명 1	58
[그림 4-42] 조명 2	59
[그림 4-43] 조명 3	60
[그림 4-44] 조명 4	60
[그림 4-45] 빛을 향해 걷는 자들	62
[그림 4-46] 동선 1	62
[그림 4-47] 또 다른 패턴의 시작	63
[그림 4-48] 에필로그 조명	64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주제로 만들어진 기독교 예술 창작 「Born-Again」에 관한 연구이다.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의 의미와 구조에 관해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 재학 중 연구방법론 수업에서 엘빈 에일리의 작품 《Revelation》을 접하고 1막에 있는 'Fix me Jesus'에 나타난 안무를 분석하여 기독교의 상징성으로 담고 있는 이미지를 찾아 연구하며, 'Fix me Jesus'에 표현된 움직임을 '기도'에 관점으로 풀어 '임재', '세우심', '의지'의 세 부분으로 확장 시켰다. 이 작품에서 흐르는 표면적인 주제는 흑인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나타내었지만, 연구자는 상징적으로 표현된 기도의 모습 속에 다양한 움직임들을 통한 영적인 세계가 표현되어 졌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에 대한 잔상이 남아 기독교 창작 무용으로 나타내었다.

「Born-Again」은 “끝까지 죄를 짓는 인간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증거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며 이로 인해 인간의 본질적 해방 즉 구원에 이른다는 진실을 무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증거 하고 싶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 이로 인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그 힘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개인적으로 작품을 준비하며 회개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생겼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순간 등 인생의 전환점이 기억이 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주홍빛처럼 붉은 죄보다 크다¹⁾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알게 되며 이 계기로 인하여 작품의 연구 방향이 생기게 되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나약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1) 이사야 1:18.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개역개정』.

위로의 메시지를 얘기하고자 하였다. 이같이 기독교적 상징성과 연구자 개인적 신앙의 영역에서 일치하는 부분에 영감받아 공연 예술로 확장 시켰고, 재해석을 시도하여 수없이 반복되어 이어지는 죄 속에서도 나약한 인간이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에 가치를 드러내어 「Born-Again」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목적에 의미를 두어 순수 예술로서의 고립이 아니라 대중문화와의 화해를 모태로 한 연극적 현대무용 성향의 작품 「Born-Again」을 안무하였고, 추상적인 제목과는 다르게 메시지를 설명하듯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쉽게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독교 사상가인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기독교 예술은 기독교를 작품 속에 집어넣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기독교인으로서 작품을 제작하는 일에서 이루어진다.”²⁾라고 말했듯이 “기독교 예술표현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 작가의 개인의 삶 전체를 표현하는 신앙고백이다.”³⁾라고 서술한다.

성경을 주제로 한 예술성에 대하여 길정훈(2004)은 성서 이야기를 무대 위에 그대로 재현하지 말고 기독교 안무가들의 작품 속에는 자신의 삶이 반영되고 종교적인 상징이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였고,⁴⁾ 박미숙(2013)은, 완성된 작품은 예술성과 표현력으로 비종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⁵⁾

이같이 작품 만드는 안무가들의 사상에는 개인의 삶의 경험으로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색채를 가진 앨빈 에일리의 《Revelation》은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독창적인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기독교 예술무용을 대중들에게 큰 감동으로 성공한 작품에 영감을 받아 공연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은 연구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술무용의 수와 연구가 많지 않아 더욱 많은 창작과 연

2) Carl Michelson. (1956). 『Christianity and Existentialists』, p. 74.

3) 김경복. (2000). “현대무용 작품에 나타난 종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마사그라함과 호세 리몽의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 대학교 대학원, p. 15.

4) 길정훈. (2004). “앨빈 에일리(Alvin Ailey) 작품에 내재된 종교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 「Revelations」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p. 61.

5) 박미숙. (2014). “현대무용사적 고찰에 의한 기독교 무용가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 21.

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작품 「Born-Again」을 통해 성서 중심의 신학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여 기독교 예술무용이 기독교인이나 일반 대중들에게도 복음의 효과적인 매체로 전달이 되는 것을 연구목적의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기독교 예술무용을 연구하는 안무자들이 넓은 사고를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작품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진리와 자신의 삶을 예술로 결합하여 한 차원 높은 기독교 예술무용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21년 11월 27일 PM 7:00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에서 공연된 기독교 창작무용 작품이다. 기독교 창작 무용 「Born-Again」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내용적, 형식적 측면, 춤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러한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전문 서적과 학위논문, 기독교 관련 잡지와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을 근거로 조사를 하였다. 이어서 기독교 예술무용 공연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앨빈 에일리의 2015년에 제작된 《Revelation》 공연과 기독교 사상을 가진 안무가들의 작품 영상과 더불어 인터뷰, 기사 등을 분석하였다. 기독교 예술 창작 무용 「Born-Again」에 관한 작품 분석의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I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연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해 서술하였다. II장은 작품의 의의를 분석하기 위해 「Born-Again」의 이론적 배경 및 내용을 살펴보고, 이 작품에 내용적 의미와 형식을 위해서 《Revelation》 1막 ‘Fix me Jesus’에서 나타나는 안무 형태와 종교적 의미를 중심으로 재해석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III장은 「Born-Again」의 배경 분석을 바탕으로 작품에 내재된 내용적 측면과 표현 방법 요소를 알아보고 연구작품의 개요를 다루었다. IV장은 연구작품의 분석으로 각 장면의 내용, 안무 의도, 구성요소와 표현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 V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창작 및 연구 과정을 통해 느낀 점, 기대효과 및 한계점 등을 바탕으로 이후 기독교 예술무용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결론을 도출하였다.

Ⅱ. 작품의 이론적 배경

2.1 Alvin Ailey의 〈Revelation〉 의미.

‘Revelation’란 뜻은 이전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또는 ‘베일을 벗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숨어있어서 알 수가 없다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계시는 특정한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포함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위를 경험하고 증언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포함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⁶⁾

《Revelation》은 앨빈 에일리의 초기작이자 대표작이다. 《Revelation》을 만들었을 때는 그의 나이가 겨우 29세였으며 10번째로 만든 작품이었다. 1960년에 초연되어 세계적으로 큰 찬사를 받았던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흑인으로서 겪은 고통과 과거의 노예 생활로 인한 억압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통해 위로받고 서로에게 의지하여 흑인 공동체의 정신적 일체감을 키우며, 기독교라는 종교적 의식에 토대를 두고 흑인들의 체험담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금도 앨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Alvin Ailey American Dance Theater)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이다. 이 무용단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은 《Revelation》을 보러 가는 것을 뜻했고, 이 작품은 무용단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이 작품의 관심은 대중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 관객들이 《Revelation》 없는 앨빈 에일리의 공연을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이 작품에 관한 관심이 엄청났었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에일리 무용단(American Dance Theater)의 공연은 이 작품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 작품은 에일리 무용단의 대표작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현대무용계에서 대표적인 흑인 무용가로 주목받게 해주었고, 《Revelation》에서 주목할

6) Daniel Migliore. (1994).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 (장경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pp. 46-47.

것은 흑인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난 동작과 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Revelation》은 1960년 초연 당시에 1시간 5분이었으나 후에 30분으로 조정되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처음 1막에서는 ‘순례자의 슬픔 (Pilgrim of Sorrow)’ 부분인데 흑인들이 노예 시절에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춤으로 이루어져 있고, 2막은 ‘나를 호수로 데려가 달라 (Take Me to the Water)’ 부분으로 호숫가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연출 된다. 마지막 부분인 3막은 ‘움직이라, 형제여, 움직여 (Move, Members, Move)’는 신을 통해 느끼는 기쁨으로 종교적 환희에 대해 다루고 있다.⁷⁾

《Revelation》에 나타난 음악, 기독교적 의미, 작품에 표현된 의미, 상징의 총 네 가지 요소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막- “순례자의 슬픔(Pilgrim of sorrow)”

장면	음악	기독교적 의미	작품에 표현된 의미	상징
1막 - 구약	‘나는 지쳤네’ (I’ve Been Bucked)	창세기 1장 - 태초의 시작.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근원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고 흠으로 와서 흠으로 돌아간다는 내용.	땅 (흠)
	‘내 주는 다니엘을 구원하셨네’ (Didn’t My Lord Deliver Daniel)	이스라엘 백성들 -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대.	흑인들의 고난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내용.	약속
	‘나를 붙잡아주소서 예수여’ (Fix Me Jesus)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	기도

(2) “호수로 나를 데려가다오(Take Me to the Water)”

7) 김경남. (1997). “미국 현대무용계에 나타난 흑인 차별적 시각과 그 극복 움직임에 관한 연구 - Alvin Ailey의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 97.

장면	음악	기독교적 의미	작품에 표현된 의미	상징
2막 - 신약	'영광, 영광' (Honor, Honor) '물속에 들어가다' (Wade in the Water)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행적 -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식 장면 연출- 하나님의 자녀이자 인정받은 사람. 즉, 인간은 평등	생명 (물)
	'나는 준비 하길 원한다.' (I wanna be Ready)	갯세마네 기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의 기도)	자신의 고달픈 삶의 인도해달라는 간절한 고백.	회개

(3) “움직여라, 형제여, 움직여(Move, Members Move.)”

장면	음악	기독교적 의미	작품에 표현된 의미	상징
3막 - 신약	'죄인' (Sinner Man)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암시.	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간의 고뇌.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	속죄
	'지나가 버린 시절' (The Day Is Past and Gone) '나와 함께' (You may Run On) '내 영혼 록카' (Rocka My Soul in the Bosom of Abraham)	영적인 승리.	교회로 향하는 평범한 일상- 공동체의 신뢰와 종교적 믿음을 기쁨과 축제에 격앙되는 경지를 표현.	은혜

《Revelation》 작품은 전체적으로 매우 희망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모두 자신의 죄를 춤으로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계시를 받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죄악 된 인간의 나약함과 긍정적 신앙의 믿음을 동작 화하여 구현하였다. 흑인으로서 겪은 고통들과 과거의 노예 생활로 인한 억압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통해 위로받았고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품

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고 나가면 늘 승리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흑인 공동체의 정신적 일체감을 키우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⁸⁾ 성서를 반영한 기독교 성향의 작품으로 안무 형태와 구성 방법, 음악 등을 사용하여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독교 핵심을 예술로 승화시켜 영혼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집약해 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1 'Fix me Jesus'를 통해 본 종교적 의미.

본 연구자는 대학원 재학 중 연구방법론 수업에서 현대무용 안무가 엘빈 에일리의 작품 《Revelation》의 공연을 보고 1막에 나오는 'Fix me Jesus'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안무에 나타난 움직임 중 손 떨림의 동작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 동작의 잔상은 깊은 감격함으로 다가왔다. 연구자가 기도할 때 일어났던 경이로운 내면의 경험을 그 동작에서 정확히 느꼈기에 그 무용수들의 표현방식이 몸으로 말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장면으로 보였으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독교 예술공연으로 발전시키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독교의 상징성으로 담고 있는 내용과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무용은 하나님과 함께 또는 천사들과 함께 추는 천국의 무용과 같다고 정의한다.⁹⁾ 쿠퍼(R.P.Kuper)는 “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고 응답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했으며 무용은 인간 육체와 영혼의 매개체로서 기쁨의 몸짓이며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¹⁰⁾ 최윤실(2010)은

8) 김경남, 상계문. p. 96.

9) 박영애. (2005). 『기독교 무용사』. 서울 : 한성대학교 출판부, p. 4.

《Revelation》 제1 막 “순례자의 슬픔”의 전체적인 주제는 흑인들의 마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명주(2009)는 영적 세계를 표현한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Fix Me Jesus’ 장면에 흐르는 주제는 기도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임 화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본 연구자는 ‘Fix Me Jesus’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Fix Me Jesus’는 일반적으로 ‘나를 잡아주소서’, ‘붙잡아주소서’, ‘구원주소서’, ‘고쳐주소서’, ‘세워주소서’, ‘고정시켜 주소서’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영, 혼, 육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완전히 정착된 것과 같은 형태 속에서 비로소 나를 주관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체험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Fix Me Jesus’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될 수 있다.

‘Fix Me Jesus’에서 핵심이 되고 분신 되는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임재’이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느낌을 주는 장면 움직임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바라보았다. 두번째 ‘세우심’이라는 제목을 정한 장면은 도와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로 비추어 듀엣의 안정된 호흡의 모습으로 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 ‘의지’의 이름을 제시한 장면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찾아볼 수 있다. 기도와 연관되는 이 3개의 주제 단어들을 제시한 장면들과 연결하여 그 속에 나타나는 동작과 표현 들을 통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논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Fix Me Jesus’에 행위를 통해 나타난 기도의 관점과 기도를 돕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점으로 종교적 의미를 통한 재해석을 시도해보려 한다. 앞으로의 세 장면은 ‘임재’, ‘세우심’, ‘의지’라는 주제들로 차례로 소개될 것이고, 그중 첫 번째 ‘임재’의 주제로 설명하고자 하며 장면 1에 나타난 종교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이신영. (2002). “한국 선교 무용의 실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 39.



〈 장면 1. ‘임재’ 〉

장면1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듯한 모습이다.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중보자이신 성령님의 모습이다. 성령의 역할에 있어서 성령은 예수 복음의 실행자이고 과거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했다.¹¹⁾ 위 장면에서는 여자 무용수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땅을 두드리고 있고 그녀를 지키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남자 무용수와 안정적인 움직임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앨빈 에일리는 이 작품 안에 여자 무용수와 남자 무용수를 등장시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을 돕는 수호천사의 모습으로 상징화시켰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Fix Me Jesus’에 나타난 ‘임재’와 ‘세우심’ 그리고 ‘의지’의 방향으로 바라보았다. 그 수호천사로 나온 역할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볼 수 있는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음성을 통해, 사물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 예언하셨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위의 장면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유사하게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한 장면으로 보인다. 여자 무용수의 시선이 바닥을 보고 손목을 사용한 손의 떨림을 보여준 후, 남자 무용수가 바로 반응하여 똑같은 손 떨

11) 김영한. (2019). “하나님 나라와 성령 사역의 지속.” 「서울: 기독교 학술원」, p. 13.

림으로 여자 무용수 머리 위에 간접적으로 터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도, 성령의 임재 동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나를 잡아주소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동작적 특징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자 무용수가 남자 무용수를 의존하는 동작들, 두 사람의 영적 호흡, 반복적인 내용의 흑인영가 가사와 움직임이 하나 되도록 연기한다는 것이다. 노예들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짐하는 것을 연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¹²⁾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백성, 또는 그를 믿는 개인들 사이의 성령 안에서 ‘만남’이라 이해할 수 있는데,¹³⁾ ‘Fix Me Jesus’에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를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였고 특히 반복되어 나타나는 손떨림의 표현은 땅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 성령님의 역할 곧,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자신들의 신념과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사진으로 보이는 ‘임재’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늘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교감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장면 2. ‘세우심’〉

-
- 12) 이명주. (2009). “Alvin Ailey의 작품 "Revelation"에 나타난 기독교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1.
- 13) 박창영. (2005).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임재의 기도.” 한세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영상신학연구소, p. 12.

두 번째 장면으로 ‘세우심’의 모티브를 나타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문자적으로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란 의미로 성령님(Holy Spirit)을 뜻한다. 성경에서는 ‘위로자’(Comforter), ‘중보자’(Mediator), ‘돕는자’(Helper), ‘상담자’(Counselor), ‘탄원자’(Supplicator)란 의미¹⁴⁾로 사용되어 진다. 이처럼 성령의 이미지로 여자 무용수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남자 무용수가 이끌어주어 여자 무용수의 아라베스크를 돋보이게 잘 세워서 만들어 주는 장면이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데 이는 각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인도하신다고 볼 수 있다.¹⁵⁾ 성령님의 마음에 따라 뜻에 따라 개인의 성전을 세워 가는 것 더 나아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의 간극을 메우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¹⁶⁾ 같이 장면 2의 동작의 구성으로 본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무용의 다른 비유들 속에서는 예수님은 자주 무용가로 등장하며 천사의 춤을 인도하고 부활의 신비를 통해 인간의 춤을 인도하며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¹⁷⁾

이처럼, 위의 장면 2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자 무용수가 여자 무용수를 계속 따라다니며 도와주고 세워주고 인도해주는 역할로 움직임 구성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안무 패턴은 성령님의 은혜와¹⁸⁾ 역할을 감당하는 재해석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세우심의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자 무용수가 바닥에 있었던 여자 무용수를 세워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눈빛으로

14) <https://terms.naver.com>. 『라이프 성경 사전』.

15) 이지희. (2021). “성령의 일하심과 성도의 실천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신학 대학원, p. 4.

16) 하용조. (2003). 『바람처럼 불처럼』.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p. 135.

17) 박영애. (2005). 전계서, p. 4.

18) 에베소서 2장 8~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 하게 함이라.”, 『개역개정』.

눈 마주침을 하며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여자 무용수를 잘 세워서 만들어 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처럼¹⁹⁾ 남자 무용수가 여자 무용수를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세워짐을 볼 수 있다. 마치 이 동작에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임재가 임하여 남자 무용수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로도 바라볼 수 있다. 이처럼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의 하나님이 노예들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하셔서 이처럼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며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무용수들이 함께 보여주는 이미지는 중보자에 탄식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듀엣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 장면 3-1. ‘의지 I’ 〉

마지막 주제에 해당하는 3-1장면은 ‘의지’에 관한 종교적 이미지로 말할 수 있다. 이 장면은 다리를 위로 뻗고 상체를 늘려 남자 무용수의 시선과 함께 여자 무용수가 쓰러지지 않게 뒤에서 손을 잡아 끝까지 책임져서 일으켜 세워주는 동작이다. 남자 무용수가 여자 무용수의 손을 잡아주고 발란스를 잘

19) 유창형. (2016). 『기독교 성령론 : 성령의 온전한 얼굴』.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pp. 65-66.

잡도록 하여 둘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작이 진행되는 흐름 중에 남자 무용수가 여자 무용수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는 리프트 동작과 여자를 들어 받쳐주고, 인도해주며 몸의 긴 라인을 보여주는 동작을 많이 넣어 우아함 속에 아름다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자 무용수가 남자 무용수를 의지하는 동작이 두 무용수의 의지와 위로, 믿음, 자유를²⁰⁾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장면3-1의 듀엣은 무용수 간의 호흡으로 서로의 타이밍을 약속하여 움직임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동작을 맡기고 진행하는 의지의 모습들로 안정적으로 보였다. 이 작품의 가사 중 ‘fix me for the bye and bye’(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을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즉, 죽음 이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온다. 우리가 신약 성서 (마태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주제였으며 대부분 주제도 “천국” 즉 “하나님 나라”로 목상할 수 있다.²¹⁾ 이는 보호받고 있는 듯한 ‘Fix Me Jesus’의 반복적인 가사가 나오는 음률과 하나 되어 인간이 고난 가운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강조의 의미로 보인다. ‘Fix me Jesus’에서는 이들의 듀엣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념과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나타내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두 무용수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여자 무용수는 남자 무용수 없이는 발란스 동작을 오랫동안 해낼 수가 없다.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불안한 동작을 시도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어 지탱하게 도와준다. 이처럼, 동작의 표현이지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완전한 의지로 맡기며 그 동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항상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해석된다. ‘Fix Me Jesus’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고정되어 붙어있는 이미지를 잘 들어내는 장면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자 무용수의 불안정한 움직임의 동작들이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는 장면으로 연출 되고 있고 이 장면에서는 남자 무용수의 역할이 없었으면 완성될

20) 이명주.(2009). 전개문, p. 50.

21) 전종필. (2009).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 사상.” 석사 학위 논문. 서울 성경 신학 대학원, p. 6.

수 없는 동작이다.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관계에 보혜사 성령님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다.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이미지로 밑에 장면 3-2 에서도 볼 수 있다.



〈 장면 3-2. ‘의지Ⅱ’〉

‘의지Ⅱ’에 해당하는 두 번째 장면의 사진으로 그려보았다. 장면 3-2에서는 여자 무용수가 뒤로 쓰러져도 남자 무용수의 자연스러운 컨택으로 이어지며 팔의 힘으로 편안하게 지탱해 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영적인 평안함과 믿음을 표현하였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²²⁾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남자 무용수와 여자 무용수의 시선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여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표현하는 장면이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²³⁾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인간의 삶은 무너짐과 쓰러짐의 연속이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를 다시 들어 올려

22) 이사야 41:10.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말 성경』.

23) 길정훈. (2004). “앨빈 에일리(Alvin Ailey) 작품에 내재된 종교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 54.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3-2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오른팔을 목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제시해 본다.

이 작품에 흐름 속에 남자 무용수가 여자 무용수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는 리프트 동작으로 여자를 들어 받쳐주며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바라보며 장면이 끝이 나는데, 잔잔한 물결처럼 서정적이고 신비로운 동작들로 잔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²⁴⁾과 간절한 그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간절한 마음이 보였다.

에일리는 ‘Fix me Jesus’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더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종교적 구원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미지를 통해 신 앞에서의 해방감을 느끼며 평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쿠르트 작스(Curt Sachs)에 의하면 “무용은 헌신이요, 주문이요, 기도요, 예언이다.²⁵⁾”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에일리는 신앙의 간구하는 신념과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²⁶⁾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기도하는 춤을 확장 시켜 종교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또한, ‘Fix me Jesus’에서 찾은 기독교적 원리로 보면 인간의 믿음과 종교적 구원에 대한 열망을 통해 자유로운 정신의 이미지를 기독교 안에서 잘 승화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²⁷⁾

24) 이명주. (2009). 전계문, p. 50.

25) 쿠르트 작스. (1937). 『세계 무용사』. (김매자, 역). 서울 출판사, pp. 16-17.

26) 길정훈. (2004). 전계문, p. 54.

27) 김경남. (1997). 전계문, p.104.

Ⅲ. 연구작품의 개요

3.1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3.1.1 안무 의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스스로 감탄하셨다.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며 마침내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최고로 감탄하신다.

본 연구자는 「Born-Again」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시선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작품을 진행하였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작품으로 상징적으로 풀고자 하였다.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소망의 마음을 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거듭남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기독교 신서 ‘Born Again’은 강한 종교적 경험을 바탕으로 거듭난 것, 신앙을 새롭게 한(신념·관심 따위를 되살린)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을 의미한다. 여기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청결’과 ‘세례’를 말할 수 있는데, ‘새 창조’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28)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Born Again’은 구원의 강력한 과정인 것이다.

연구자는 평소에 죽음 이후의 영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한 그림이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곳이

28) 강동현. (2019). “요한 공동체의 ‘위로부터의 거듭남’ 이해-요한복음 3:1-8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p. 40.

있다면? 이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정말 죽지 않는 영원한 곳이라면 그 세상을 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반복해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기쁨과 감격스러웠던 경험을 한 후에 다시 빠지게 되는 갈등과 좌절의 함정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삶이 생각이 났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 이로 인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그 힘은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점에서 연구는 작품으로도 이어졌다. 개인적으로 작품을 준비하며 회개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생겼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순간 등 인생의 전환점이 기억이 났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에게 토설 기도로 정직한 마음을 표현하였던 다윗의 행함을 묵상하며 작품 2장에 적용하였다.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 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렁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²⁹⁾

이처럼,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함으로 인간의 죄업 본성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중점으로 안무를 고찰하여 분석하였다. 즉, 생명을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 안에 정한 마음³⁰⁾이 창조되어 청결하게 되어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거듭 시도하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주홍빛처럼 붉은 죄보다 크다³¹⁾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인하여 최악의 상황에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계시기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나약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에 머물고자 한다.

29) 시편 30:2-3. 『우리말 성경』.

30) 시편 51:10.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말 성경』.

31) 이사야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개역개정』.

3.1.2 작품 내용

작품 「Born-Again」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를 떠나 태어난 이후 ‘실수-죄의식-용서-죄-용서-죄’로 수없이 반복되어 이어지는 인간 삶의 상황을 그려보고자 했다.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기중심적 욕망을 통한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신의 용서에 대한 반복적 패턴의 평범한 일상을 작품 속에서 확장해 보고자 했다. 그리고 때때로 인간의 죄의식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존심의 상실과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복하려는 욕망 또한 그려보았으며, 나아가 그러한 과거를 극복하고 싶은 의지 또한 나약한 인간을 통해 담고자 하였다.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각의 사람 들은 죄의식으로 회복하려고 하지만, 다시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한다. 죄에 빠진 인간이 거듭나기까지의 과정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전달하고자 「Born-Again」의 의미 부여로 드러내었다.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본 작품은 「Born-Again」에 대한 내용과 형태를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위해 총 2장의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작품의 구조는 ‘프롤로그 - 1장 - 2장 - 에필로그’ 순으로 진행되며 실수와 죄의식 과정에 반복적인 패턴의 형태를 가진 론도형식(Rondo Form)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론도는 ‘돈다’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떤 주제가 여러 번 되풀이 되는 동안 주제 사이에 대조적인 부주제를 넣어 만든 형식으로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에 쓰인다.³²⁾ 본 연구는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없이 반복되는 패턴에 일상을 ‘실수-죄의식-죄-용서-실수-죄의식’으로 진행되는 인간의 삶의 순환을 론도형식이라는 음악적 형태를 가져와 작품 전체의 구조로 반영하였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서도 죄의 유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사악한 인간의 모습과 이런 모습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의 역할을

32) 김송설. (2013). “감상을 통한 악곡 형식 이해 지도-론도, 소나타형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p. 35.

투영하였다. 다시 인도되는 삶으로 전환점이 되어 회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양식에 의미를 둔 진행형으로 끝나는 형식이다.

본 작품 주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결말 부분 에필로그에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Born-Again」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이 [표 3-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1]. 작품의 구조

장 구분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프롤로그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암전 상태에서 음악을 시작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의도를 직관적으로 표현함 - 여러가지 죄의 모양으로 설정된 소품(사과)을 매개체로 인간의 양면성을 표현	1'
1장	반복되는 실수와 죄의식 과정의 모습	- 죄와 죄의식의 공간을 분리하여 타락한 인간속에 들어있는 상반되는 감정을 표현함 - 죄의식 공간을 각 각의 움직임에 죄의 공간에서는 바다 컨택을 이용한 몸의 접촉 중심으로 안무를 진행함	9'
2장	나약한 인간에게 임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악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표현함 - 갈급한 감정으로 빠른 동작과 음악, 큰 동선을 사용하여 모든 감정이 몰아치는 감정표현	4' 38"
에필로그	영적으로 다시 새사람이 되는 이미지	- 영상 상영과 무용수들의 실루엣으로 거듭난 사람을 표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죄성이 다시 시작한다는 모습으로 암시	1' 06"

3.3 작품의 배경 및 모티브

3.3.1 성경적 배경

3.3.1.1 돌아온 탕자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1668-1669)

누가복음(15:11~32)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는 교회와 기독교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유 중의 하나이다.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이 비유에 “가장 걱정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하였다.³³⁾ 렘브란트는 삶과 예술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다른 화가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를 위주로 그렸다면, 렘브란트는 본인을 직접 탕자로 분장하여 영적인 자화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는 허물 많은 탕자를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자비에 시선을 모았다. 연구자는 아버지의 초점으로 시선을 머물며 마치 사람들을 용서의 자리에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상상되었다.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는 모든 것을 잃고 제정신을 차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마음에 다가왔고 이 작품의 주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성경적 그림 배경을 묵상하였다. 특히 아직 멀리 떨어졌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았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다정히 재회하였다. 이 부분에서 연구자는 하나님의 인간적 감성의 표현으로 보았고, 탕자가 마음 놓고 돌아갈 곳 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맥락에 감동했다.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대단한 차이이고 죄 가운데 절망의 동굴 속에 있을 때 빛에 한 줄기라 생각한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의 동굴 속에 있어도 탕자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2장 주제의 안무 확장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33) 서성록. (2011).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연구.” 「신앙과 학문」, pp. 131-155.

3.3.1.2 가인과 아벨

프롤로그와 1장에 반복적인 암시로 표현이 됐던 욕심을 주제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져와 참고하였다. 그리고 욕심이 발전되어 가인이 아벨에게 느끼는 질투와 시기심이 살인까지 이어져 마주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시기심이란? 주체가 바라던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볼 때 분노하며, 그것을 파괴해버리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킨다.³⁴⁾ 시기심 관점에서 시기하는 자인 가인과 시기 받는 자인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프롤로그부터 1장에 첫 번째 죄업 본성을 드러내는 실타래를 풀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움직임 화하였다. 또한 시기심과 유사한 것으로는 질투(jalousy)와 탐욕(greed)이 있다. 시기심, 질투, 탐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시기심은 주체가 열망하는 좋은 무언가를 다른 대상이 소유한 것을 볼 때 분노로 고통스러워하고, 질투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에 따르면, 탐욕을 가리켜 “맹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이라고 주장한다.³⁵⁾ 연구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기심, 질투, 탐욕이라는 이 세 가지 감정을 일상의 관계적인 모습으로 살폈다. 무용수 3명이 각각 캐릭터를 만들어 설정하여 분류하였고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감정들이 사회적 관계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에도 찾아보았다. 작품의 1장에 나오는 첫 번째로 표현된 끈질긴 죄성의 움직임들을 위해 가인의 감정을 상상하여 엮었다. 본 연구는 성경 속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사랑하시는지 묵상하여 작품의 그림으로 녹아내어 내면의 표현을 극대화했다.

34) 최윤아. (2018). “시기심을 마주하는 심리적 공간에 대한 고찰 : 멜라니 클라인의 관점에서 본 가인과 요셉 이야기.”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 대학원, p. 8.

35) 상계문, pp. 11-16.

3.3.2 모티브

3.3.2.1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Born-Again」에서 뼈대가 되었던 전체 내용의 핵심 배경은 주기도문에서 영감받아 제시한 내용이다.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림을 모색하며 땅과 하늘 위·아래로 분리하여 선으로 이어져 있는 이미지를 상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연구자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발견하였다. 「Born-Again」을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로 살펴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삶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급하고 당황한 마음에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했던 이 단순한 기도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느꼈다.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가 임하는 기도 내용은 거듭남의 비밀에 마침표를 찍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다. 특히 주기도문 내용 중 두 가지 기도문장을 작품 배경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를 내면에 묵상으로 적용하였다. 인간의 삶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든 인간의 관계든지 본질에서 죄에 의해 일그러져 있으므로 회복된 관계 속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죄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³⁶⁾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혀 희망을 잃어버린 인간의 울부짖음이 있으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36) 라병원. (2008). “산상설교에 나타난 주기도(마 6:9-13)의 신학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pp. 98-111.

돌아선 나약한 자들을 인내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이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셨다. 따라서, 그분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사랑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내적 묵상의 움직임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배경을 상상해 보았다.

3.3.2.2 “트라이푸디엄(tripudium)”

「Born-Again」은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예술로 승화시켜 만든 현대무용이다. 본 연구는 성경 속 인물들의 기반과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모든 예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중세 교회 무용에 영향을 받았던 “트라이푸디엄(tripudium)”이라는 스텝을 작품에 이미지로 투영시켰다. 중세 무용은 오늘날 무용의 역사와 특히 기독교 무용에 있어서 발전하게 된 큰 계기가 되는 시기였고 현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여 작품에 의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중세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교회 무용 중에 “트라이푸디엄(tripudium)”이라고 불리는 이 스텝은 연구자의 작품과 의미에 적절한 행위가 적절하게 맞는다고 생각하여 움직임의 소스로 활용하였다.

“트라이푸디엄(tripudium)”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박영애(2006)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교회에서 행해지던 춤은 대부분 합창 무용(choral dance)이나 원무(ring dance)였으며 대부분 찬송가나 시편에 맞추어 추었다고 한다. 그중에는 “트라이푸디엄(tripudium)”이라고 불리는 무용도 상당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14세기에는 어느 수도승이 성가대 소년들을 위해 원무와 “트라이푸디엄(tripudium)” 무용을 하면서 노래하는 찬송가를 작곡한 예도 볼 수 있다. 트라이푸디엄은 기독교의 전형적인 무용 형태로 특히 중세 교회 무용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것

은 앞으로 세 번, 뒤로 한 번의 스텝으로 구성된 패턴을 반복하는 행렬 형태의 무용이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나 실수로 인해 뒤로 퇴보할 때도 있지만 또다시 용서받고 앞으로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이다.³⁷⁾

이처럼, 트라이푸디엄 스텝은 앞으로 세 번 스텝으로 전진하고 뒤로 한번 후퇴의 모양이다. 우리의 삶에 인생이란 늘 앞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살아가지만, 고통과 슬픔과 좌절로 인해 우리는 잠깐 뒤로 퇴보될 수 있지만 앞으로 나갔던 스텝에 의미를 두어 이 전보다 더 앞으로 나아간 것에 뜻을 두어 1장 죄의식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3.4 작품의 구성요소

3.4.1 오브제

무대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는 극 공간에서의 언어표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감각 언어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³⁸⁾ 「Born-Again」에서 사용된 오브제는 사과이다. 이 작품에서 사과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정황이나 나약한 인간이 죄를 다루는 심리를 사과에 투영시켰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하나님에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물이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죄의 열매에 얽혀있는 관계성의 역할로 설정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는 아담 자신의 본성이 본래의 선과 의와 거룩 의 위치에서 죄, 불의, 악의 위치로 타락하였다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원죄의 근원이 되며 여기에서부터 죄와 악의 모든 요소가 흘러나온다.

37) 박영애. (2006). “중세시대의 교회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11권, p. 11.

38) 김선주. (2013). “현대무용사에 나타난 오브제 사용의 의미.”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 11.



[그림3-1]. 오브제의 상징적 의미

사과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인간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에 물체였다. 이 오브제를 보는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욕망이나 꿈,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으로서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3.4.2 음악

「Born-Again」에서는 총 5개의 음악과 소리가 사용되어 졌다. 장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모습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음악사용에서도 상반되는 느낌이지만 또 분위기의 차이가 너무 다르지 않게 또한 관객들이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음악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음악은 큰 역할을 하였고 음악적 분위기가 반대되지만, 옴니버스(omnibus) 형식처럼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늘어놓아 한 편의 작품으로 나오는 그림을 상상하며 작업을 이어나갔다.

박영애(2011)는 “음악이 지니는 정서적 이미지 및 심리적 반응은 생리적, 지적(知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은 그 음악을 처음 들을 때의 환경이나 상황, 또는 그 당시에 받았던 이미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³⁹⁾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무용에서의 음악 사용은 다양한 표현이 모색되기 때문에 관객들이 공연을 볼 때 음악에서 주는 소리를 자기화하여 상상하며 무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용수들과 비슷한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

먼저 프롤로그에서 사용된 음악은 그레고리로 알레그리(Gregorio Allegri)의 “Miserere”(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뜻을 가진 성가곡이다.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는 중세부터 기독교의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대표적인 단선 전례음악이다. 중세는 기독교가 종교적, 정신적 지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로⁴⁰⁾ 기독교 신앙이 제1의 가치였던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이다. 중세 6세기~12세기 동안에는 교회가 더욱 권위적으로 흘러 특정한 무용들을 금지하는 정책이 내려오는데 불구하고, 그 시기에 그레고리안 성가에 맞춰야 하는 명확하고 규정된, 상징적인 움직임이 발전되기도 했다.⁴¹⁾

「Born-Again」에서는 프롤로그와 1장에서 그레고리안 사용을 하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음 성가 음악으로 지루한 듯하지만 순결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나서 이 음악 사용을 하였다. 그레고리(Gregorio of Nissa: A.D. 335~394)는 “시편에 대한 설교”에서 하나님을 성가대의 지휘자로 묘사하기도 했다.⁴²⁾

본 연구에 사용한 “Miserere”는 다윗이 쓴 시편 51편을 모티브로 만든 노래이고 그레고리안 성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여서 금기의 노래로 지정되었다는 성가이고 다윗이 자신을 가장 신뢰하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만든 이가 부른 참회의 노래이다.⁴³⁾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회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죄의식 움직임에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다음은 연구작품에 활용한 가사의 부분이다. 시편 51편을 가사로 하는 성가이고 다윗의 참회록으로 신에게 죄를 고백한 후 용서를 비는 내용이 담겨 있는 합창이다.

39) 박영애. (2011). “무용 요법에서의 음악사용.” 『대한 무용학회』, 70(1): p. 151.

40) 박영애. (2006). 전개문, 11 : p. 6.

41) 상계문, p. 5.

42) 상계문, p. 12.

43) 사무엘 하 11: 2~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개역개정』.

Miser-ere mei, Deus: secundum magnam misericordiam tuam.

하나님,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Et secundum multitudinem miserationum tuarum, dele iniquitatem meam.⁴⁴⁾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고백한 회개의 내용이고 특히,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지른 후 그 부분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다윗에게 보내셨을 때 깨달아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는 이 성가에서 경건하고 신비로운 음악적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목상이 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이 평안과 위로로 다가왔다. 그래서 「Born-Again」 안에서 회개(죄의식)의 장면을 이 성가로 사용하였다. 엄숙한 성가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다채로운 현대음악의 분위기도 흐르며 특히 마음속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장은 총 9분 정도로 장면의 전환과 감정적 변화가 빠르게 바뀌면서 진행이 되는 장으로 총 2곡의 음악과 소리로 상반되는 죄와 회개의 분리된 공간의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무 음악을 시작으로 탐욕과 욕심으로 이어지는 감정이 격해지면서 전자음악이 나온다. 이것은 첫 번째 죄성을 표현하는 음악으로 “Hodge-sunlight on a Broken column (죽음의 꿈에 왕국)”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지옥의 타이틀로 만들어진 곡이다. 유혹적이면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비트가 강하게 들어가며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는 분위기로 설정한 음악이다. 장면의 전환과 감정적 변화를 표현하는 움직임과의 연결성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 음악을 사용하였다. 다시 죄의식의 공간에서 활용할 음악 그레고리로 알레그리(Gregorio Allegri)의 “Miserere”가 나온다. 하지만 프롤로그와 다른 가사로 회개의 장면을 표현한 음악이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4) 이동현. (2008). “Gregorio Allegri의 습창곡 『Miserere mei』의 分析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 47.

Docebo iniquos vias tuas: et impii ad te convertentur.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Libera me de sanguinibus, Deus, Deus salutis meae: et
exsultabit lingua mea justitiam tuam.
하나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하시는 하나님.
제 혀가 당신에 의로움에 환호하리로다.

죄에서 극도로 벗어나고 자신의 죄를 씻고 없애고 싶은 죄의식의 과정이지만 다시 죄의 유혹으로 설정된 소품(사과)에 비추는 조명의 배경과 함께 불길한 암시가 들며 전자기파 소리가 미제레레 성가와 섞여지며 음침한 분위기와 함께 다시 죄업 장면으로 이어진다. 무용에서 음악의 요소는 안무 과정을 지적으로 활용하여 안무의 지평을 펼칠 수 있다. 이처럼, 박영애(2004)는 “무용과 음악의 관계는, 이 두 개의 요소가 독립적으로 각기 자신의 진술을 해 나가는 동시에 이상적인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적절히 조화되며 하나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⁴⁵⁾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자기중심적 쾌락, 중독으로 설정된 두 번째 죄의 장면에서는 사람 숨소리가 들어가 죄의 늪으로 점점 빠지는 상황과 소리의 집중과 함께 분위기가 고조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 부분인 2장에서는 음악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숨소리는 반복되는 소리로 점점 증폭되면서 소리가 커지며 최고조에 이른 후 ‘Fix me Jesus’ 합창 성가곡이 나온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나왔던 엘빈 에일리는 ‘Fix me Jesus’를 여자 솔로 음악 사용을 하였는데, 「Born-Again」에서는 (Amazing Grace) 앨범 안에 들어있는 합창곡을 사용하였다. 합창곡을 선택한 이유는 예배 안에서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부르는 ‘Fix me Jesus’가 합창으로 불렀을 때의 가사 전달력의 힘은 같이 중보기도로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기도 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며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연구자의 의도를 합창의 감동으로 담아내었다.

45) 박영애. (2005). ““Passacaglia in C Minor”에서의 음악과 관련된 안무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 무용학회 논문집』, 43: p. 160.

3.4.3 의상

본 작품에 있어서 의상은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의 정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정장 스타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복의 형태로 갖춰 입는 느낌으로 맞추었다. 그리고 플로어를 이용하는 움직임과 바디컨택(body contact)의 격한 움직임들이 방해받지 않게 유연한 정장을 착용하였다. 의상에 표현되는 특징은 3명의 무용수가 흰색과 회색의 두 가지 색상으로 상의와 하의로 디자인을 다르게 정하였고 패턴이나 무늬는 상의 속 탑에만 직접 넣어 작품의 의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계획하였다. 이처럼, 현대무용 의상은 각각의 안무에 맞추어 주제를 시각화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상징적인 성격을 띠게 되므로 전위적인 시도와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⁴⁶⁾

「Born-Again」의상에서는 인간의 이중성에 초점을 두어 입었고 상의는 인간의 겉모습, 죄의식, 하나님을 만났어도 죄 사이를 두고 헤매는, 또는 죄를 덮거나 죄의식으로 사용된 절제되고 규범적인 느낌에 하얀색을 표현 요소 중에 하나로 설정하였고, 하의나 상의 속 의상은 빨간빛과 회색의 보색대비로 디자인하여 입었는데 따로 손 페인팅을 넣어 죄에 덮여 있는 사람을 의미하여 어두운 마음 상태와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이미지를 주어 검은색 페인팅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도를 두고 작업하였다. 회색은 중립적이고 음울하고 평범한 느낌을 주고자 부분부분 입어 전체적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을 색감으로 의도하므로 색채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주제와 전달력을 높였다. 이처럼 색채에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 표 [3- 2] 는 작품 의상에 투영된 색의 심리적 연상과 색채 이미지를 정리한 것이다.⁴⁷⁾

46) 박미정. (2001). “아방가르드 특성을 도입한 현대무용 의상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원, p. 18.

47) 김문정. (2004). “영화 의상에 표현된 색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p. 37.

[표 3-2]. 작품 의상에 적용된 색의 심리적 연상

색		심리적 연상	색채 이미지
	빨강색	사랑, 용기, 흥분, 죄, 희생, 생명력	정열적인, 대담한, 섹시한, 위험한
	하얀색	희망, 깨끗함, 순결, 사랑	은은한, 깨끗한, 성스러운
	회색	조용함, 후퇴, 중립	활동적인, 점잖은, 도시적
	검정	침울, 장례, 슬픔, 형식	강한, 반항적인, 세련된

창작물에 의상을 한 예술로의 의미작용을 통해 시각적 자아를 가지는 어떤 이미지인 시각예술의 한 형태로 인식이 되면서 의미 전달체로서의 새로운 기능이 첨가되었다.⁴⁸⁾ 손 페인팅 무늬를 의도함으로 의상과 작품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또는 객관적인 시각이 되어 설명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 자체로서 힘을 가지는 특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3- 3] 은 각 무용수의 표현에 상징하는 의상 구성이다.

48) 박현신. (2000). “의상 작품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37(13): pp. 93-94.

[표 3-3]. 의상의 구조와 의미적 목표



살인과 탐욕에 지배 받는 자
 - 앞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야에 안보이는 손 모양으로 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 잡고 있는 형태를 핸드 페인팅 무늬 사용
 - 재료 : 패브릭 물감 (적색, 검은색, 하얀색)

[그림 3-2]. 무용수 1 의상



낙망과 자살에 지배 받는 자
 - 목으로 올라가는 짓 누르는 손 모양을 표현한 핸드 페인팅 무늬로 사용
 - 재료 : 패브릭 물감 (적색, 검은색, 하얀색)

[그림 3-3]. 무용수 2 의상



중독과 쾌락에 지배 받는 자
 - 여러 각도의 손 모양으로 핸드 페인팅 무늬로 사용
 - 재료 : 패브릭 물감 (적색, 검은색, 흰색)

[그림 3-4] 무용수 3 의상



[그림 3-5]. 의상 페인팅 작업

3.4.4 조명

「Born-Again」을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무대조명은 각 장의 분위기에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미지의 전환점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었다. 표현 방법에 따라 조명의 색감 변화를 부각해 빛을 사용하였다. 무용 예술은 인간의 육체를 매개체로 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예술이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나 글을 통한 설명이 없이 무용수들이 움직임 을 통해 표현되는 동작들이 엮여져서 하나의 작품으로 형상화되어 무대 위에 완성되면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⁴⁹⁾ 이러한 공연 무용 예술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외의 요소 중에서 시각 표현 매체로 불리는 조명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Born-Again」에서도 각 장이 설명하는 주제가 서로 다르고 명확했기 때문에 성격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작품 속 내용의 분위기를 표현하려면 조명의 역할이 중요했다. 소품으로 사용한 사과를 최대한 유혹적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나약한 인간의 효과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외롭고 어두운 조명 연출이 필요했으며,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극적인 긴장을 최대한 극대화해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조성하려 하였다.

프롤로그에서는 제한된 공간을 보여주는 역광(Back Light)과 두 광(Top Light)의 사용으로 빛의 조도 사용에 중점을 두고 관객들이 무대를 바라보았을 때 성스러운 라운드 원형에서 서 있는 무용수들과 소품을 비추는 조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역광(Back Light)을 사용함으로써 무용수들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엄숙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프롤로그의 조명색은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 깨끗한 이미지와 아직 죄업 본성이 나오지 않은 인간의 겉모습을 표현하려고 아무 색이 없는 흰 조명만 사용하였다.

1장의 조명은 무 음악에서 무용수들이 사과로 인하여 관계 형성이 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청색 컬러필터를 사용하였다. 컬러필터는 무용공연에 있어 연출을 좌우하고 분위기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상반된 성격의 극적인 안무 연출을 위한 표현에 맞는 분위기와 색감

49) 신 호, (2007). “조명을 통한 무용 예술의 무대 공간 시각화 방안 연구.” 『한국무용학회』, 7권(1), pp. 77-78.

으로 사용한다. 연구자가 청색 컬러필터를 사용한 이유는 인간의 욕심으로 이어지는 자기중심적 탐욕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차갑고 냉정하고 신경의 피로함으로 가득 찬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선택하였다. 탐욕의 분위기가 고조로 진행되면서 빨강의 필터로 인간의 혈기와 분노를 표현하여 극적 표현으로 이끌었고 마지막은 무용수 앞에 풋 조명이 사용되어 흰 벽에 무용수의 극적 표현과 움직임이 그림자로 나타나 더 확대되어 보여 극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되었다. 다시 성스러운 공간이 펼쳐지고 프롤로그에서 사용한 조명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 죄업으로 표현된 음란함과 쾌락의 설정으로 소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의 조명으로 비추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죄악을 표현했다. 그리고 죄를 선택하는 쾌락적 중독을 표현을 주기 위해 자주색으로 설정하여 방탕과 성적인 중독의 허무함 들을 이미지화하였다. 제한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모습들을 각 광(foot light)을 사용하여 인간의 겉모습 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도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부여 하였다.

2장의 조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순결, 신성과 정직을 뜻하는 하얀색 조명을 사용하여 구성의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하였다. 특히 2장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외침과 갈망의 감정으로 나약한 인간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느낌을 주기 위해 무대 전체 조명과 하얀색과 하늘색 조명으로 조도를 최대 업 하여 무대를 밝게 비추어 희망적인 분위기를 내었고 또한, 작품의 중간중간 공간의 분리나 강조를 보여주기 위하여 탑 조명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조명 에필로그에서는 영상이 끝나고 파랑 두 광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남자 무용수가 하수 다운스테이지 향해 걸어갈 때 상 측광(high side light)을 사용하여 걸어나 오는 무용수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해주었으며 마지막 탑 조명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정은(1993)은 “무용 조명은 강조할 것은 강조해주고 어떤 사물이나, 연기자나, 어떤 공간을 조명해서 주의집중 시킬 수 있고 또한, 관객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중요치 않은 것은 모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Born-Again」 속에서 장면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한 풋 조명으로 인하

여 그림자 생기는 현상을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또는 현실에서 영적 세계로의 분위기로 이끌어 나타내었다.

3.4.5 영상

본 연구자는 영상을 활용하여 무대장치를 사용하였다. 작품의 2장 마지막 장면에서 영상을 상영하여 무대의 벽면에 프로젝션 스크린(projection screen)에 빔(beam)을 투사하여 VTR(videotape recorder)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작품의 제목인 「Born-Again」 즉, 거듭남을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명확하게 이미지로 전달함으로 관객들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 사용을 하게 되었다. 김수민(2010)은 무용 작품에서 영상의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영상 기술 활용은 다양한 형태와 색채,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통합하고, 확장된 시·공간에서 색채와 리듬 및 역동성의 결합으로 무용의 표현성을 무한히 증폭시킬 수 있다.”

연구자는 진행 과정에서 영상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안무자가 정의한 주제 전달을 하였으며, 영상과 무용수는 작품에 중요한 의미전달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더불어 무용수의 감성 요소와 영상이 이질적이지 않게 표현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야 했다.

특히, 본 연구의 기독교 예술무용 창작작품 「Born-Again」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면으로 전달하는 확장을 이루어 시각적, 공간적 효과를 나타내었고 또한, 영상을 사용함으로 작품의 끝을 맺고 관객들에게 전반적인 작품의 흐름과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계획하였다.

IV. 연구작품의 분석

4.1 프롤로그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선(善)’과 ‘악(惡)’의 반대되는 두 가지 감정이 맞서는 성질이 있다. 죄의식으로 설정된 원형 라운드 공간에는 무용수들이 원을 돌아 가는 방향으로 질서 있게 서 있다. 이것은 예배 안에 있는 통일된 그리고 하나 된 느낌을 보이며 겉면만 보이고 속을 모르는 인간의 양면성의 모습으로 연상하여 프롤로그를 구성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오브제와 상징적인 관계를 직관적인 표현방식으로 보여주고자 의도하였다. 서 있는 무용수들이 사과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은, 표면으로 드러난 감정과 드러나지 아니한 감정으로 앞으로 진행될 작품의 의도나 내용에 대한 복선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4-1> 감춰진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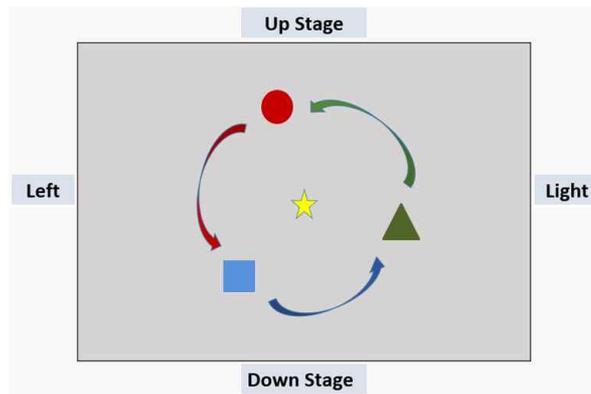


<그림4-2> 인간의 양면성을 표현한 장면



<그림 4-3> 신을 의식하는 모습

<그림 4-4> 선함과 악함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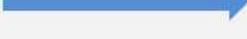


[그림 4-5] 프롤로그 동선

<그림 4-1>, <그림 4-2> 과같이 전체가 거룩한 공간 안에서 무용수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서로 같은 곳의 방향으로 걷고 시선은 오브제를 향하여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며 죄의 유혹과 앞으로 극이 진행되는 장면의 궁극중이 관객들로 느껴지게 하도록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서는 크고 강한 움직임보다는 각 무용수가 전달하는 감정을 축약하여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4-3>, <그림 4-4>의 ①,②,③번 무용수들이 원형의 공간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감추어진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있는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4-1] 은 앞으로 나올 등장인물들의 동선에 방향과 오브제를 색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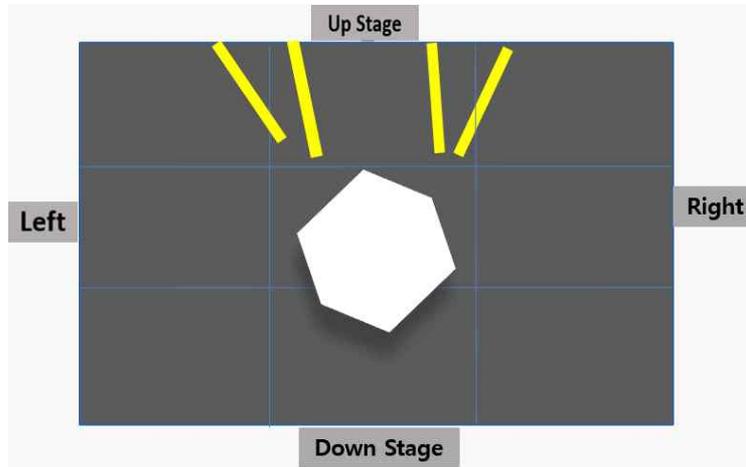
[표 4-1] 기호 및 동선과 방향 색

등장인물	기호	동선 표시 색
무용수 1		
무용수 2		
무용수 3		
오브제		

4.1.3 음악

암전 상태에서 작품이 시작되고, 웅장하지만 아름다운 성가의 시작으로 소리가 들리면서 조명과 함께 무용수들의 상징적인 이미지의 장면이 연출된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의 유형이 있지만, 암전에서 음악이 시작한 이유는 먼저 관객들에게 청각적으로 집중을 높이기 위함이다. 프롤로그에서 사용한 음악은 그레고리오 알레그리(Gregorio Allegri)의 “Miserere”(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뜻을 가진 성가곡으로 음악 자체만으로 존재감이 있고 힘이 있는 곡이라 생각한다. 무대에서는 무용수의 에너지만으로 오브제에 집중이 되도록 하고, 음악이 말해주는 가사로 전체적인 암시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프롤로그는 청각적인 공간을 가득 채우도록 의도하고 안무의 복선을 깔아 무용수들의 표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4.1.4 조명



[그림 4-6]. 프롤로그 조명

프롤로그에서는 암전이 된 상태에서 음악이 먼저 나오는데, 무대 센터에 원형으로 제한된 공간을 보여준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그들의 관계성을 이미지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역광(Back Light)과 두 광(Top Light)의 사용으로 빛의 조도 사용에 중점을 두고 관객들이 무대를 바라보았을 때 라운드 원형에 서 있는 무용수들의 분위기는 신비함, 엄숙함 냉정함을 만들고자 하였다. 오브제를 비추는 조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도를 80%까지 올렸다. 역광(Back Light)을 사용함으로써 무용수들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엄숙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프롤로그의 조명색은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 깨끗한 이미지와 아직 죄업 본성이 나오지 않은 인간의 걸모습을 표현하려고 아무 색이 없는 흰 조명만 사용하였다.

4.2 제1장 : 달콤한 열매 (죄)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1장은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파생된 죄업의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장이다. 론도형식을 통해 주제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그리고 ‘실수-죄의식-용서-죄-용서-죄-’로 무한 반복되어 겪는 일상에 상황을 무용화하여 재현한 장면이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더 부각해 과거에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하여 회상하는 장면으로 죄 - 죄의식, 실수를 통한 회개로써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을 움직임의 언어로 담아 작품의 흐름과 주제 및 내용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광경으로 담았다.

죄의 상징성으로 설정된 사과의 탐색을 통해서 무용수들은 각각의 탐심의 모습과 질투와 시기로 발전한 집요한 모습으로 변하여 오브제에 집착하며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의 죄의식 속에 나타나는 자존감의 상실과 자신이 저지른 죄를 무효화 하려는 욕망을 나타냈으며, 지극히 작은 욕심의 형태가 발전하여 사회적 관계성에서 큰 악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표 4-2]를 참고하여 그려보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중독에 대한 잘못된 이해관계를 전달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장은 선과 악의 이중구조가 부각 되어 보이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표 4-2]. 상반되는 두 개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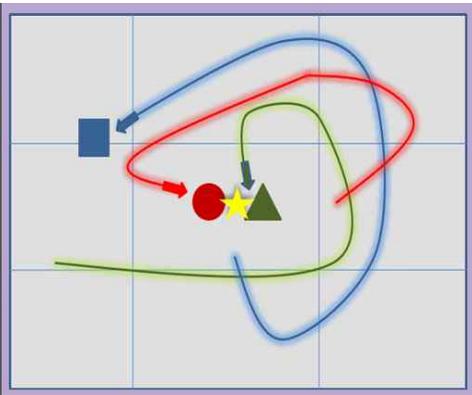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방탕, 또 이와 같은 것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죄의 상징성으로 설정된 사과에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느낌을 주기 위해 달라붙는 것 같은 표현의 움직임으로 1장이 시작되고 오브제(사과)를 중심으로 무용수들의 초점이 집중된다. 작은 것에서 욕심이 시작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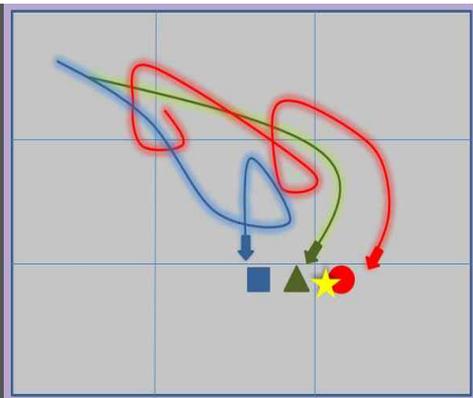
[그림 4-7]. 이성과 감성의 공존



[그림 4-8]. 동선 1



[그림 4-9]. 개인 중심적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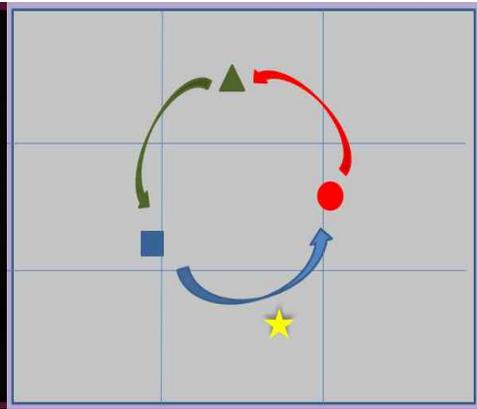


[그림 4-10]. 동선 2

[그림 4-7]의 장면처럼 인간성의 두 측면 이성과 감성에 행동과 심리를 나타내었고 몸은 먼저 죄업에 반응하지만 생각하는 이성은 몸을 제지하는 움직임 연출하였다. 거룩함과 타락이 공존하는 인간의 본성을 의도하고자 하였고 서로 욕심으로 급해지며 서로 뺏고 빼앗는 움직임으로 격해지면서 강렬한 전자음악이 나온다. 그들이 향하는 곳의 욕심과 시기 등 형태와 방향은 다르지만 [그림 4-9]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쟁취를 위해서 남을 짓밟으며 포기하지 못하는 장면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탐심에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쓰러진다.



[그림 4-11]. 트라이푸디움의 상징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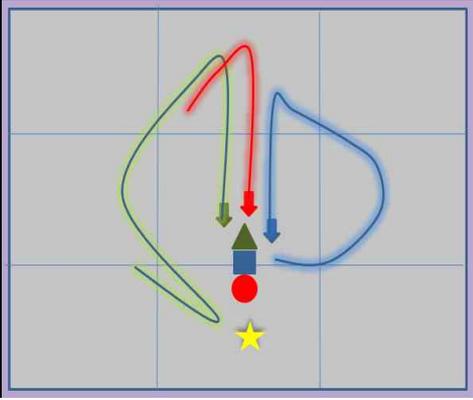


[그림 4-12]. 동선 3

[그림 4-11]의 장면은 죄의식의 두 번째 장면으로 다시 순환적인 동선에 의미를 둔다. 게임 놀이 중에 의자 놀이하는 것과 같이 누군가를 짓밟으면서까지 쟁취한 사람은 죄책감에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어한다. 이 광경에서는 중세시대 교회 무용에서 의미적으로 쓰인 스텝의 형태인 ‘트라이푸디움(tripudium) 스텝’을 다시 추가하여 안무를 정립하여 나타내었다. 죄나 실수로 뒤로 퇴보될 때도 있지만 또다시 용서받고 앞으로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죄의식 공간에서 투영시켰다. 다시 론도형식으로 주제는 같지만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의 움직임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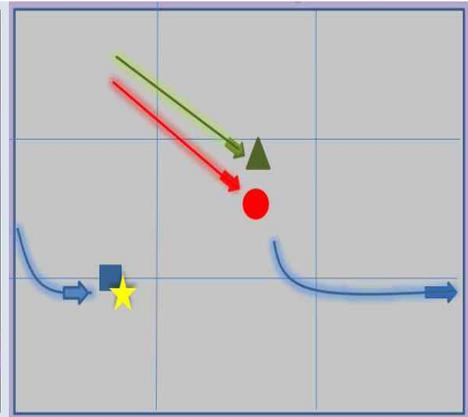
[그림 4-13]. 간교한 속삭임



[그림 4-14]. 동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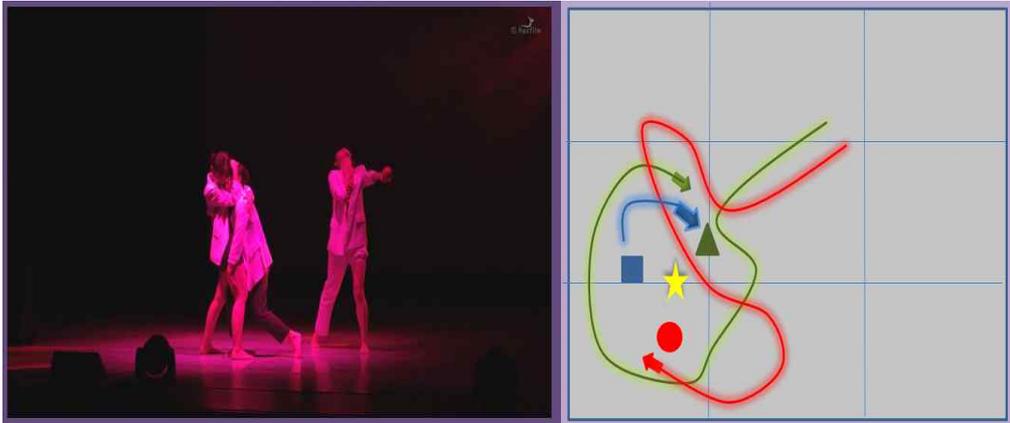
[그림 4-15]. 죄로부터 변형된 형태



[그림 4-16]. 동선 5

[그림 4-15] 지극히 작은 욕망의 형태가 발전하여 사회적 관계성에서 큰 악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움직임에 관계성을 넣어 그려보았다. 쾌락에 관한 부분으로 중독은 애착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애착 관계가 내면에 형성되면 관계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⁵⁰⁾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갈망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다.

50) 광정임, 전요섭. (2017). “기독교인의 성 중독 회복을 위한 상담방안.” 『한국 복음주의 상담학회』, 25(2): P. 87.



[그림 4-17] 죄의 증폭

[그림 4-18] 동선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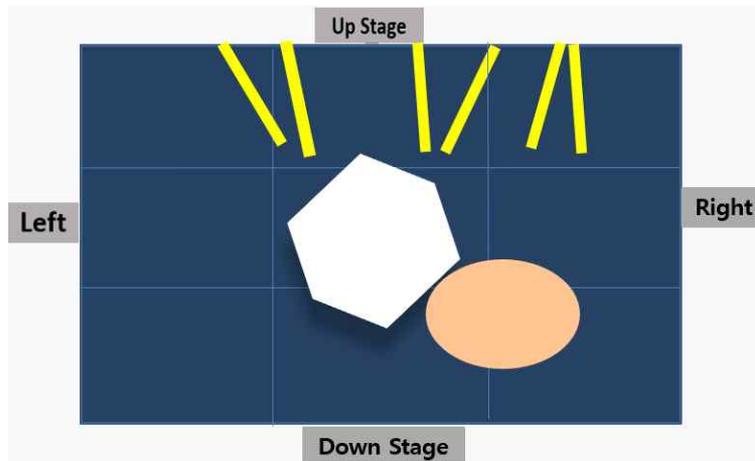
[그림 4-15] 와 [그림 4-17] 장면에서는 두 공간 분리로 증독의 연관성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표현하였다. 플로어 무브먼트(floor movement) 적용으로 분리된 동선에서 Stage LD(Left Down)로 합쳐지는 과정으로 몰아가게 하여 결국 자신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죄의 단계의 모습을 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렇게 1장은 인간의 양면성을 반복하는 요소들로 작용하여 그들이 현재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선과 몸의 방향을 중점으로 움직여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1장은 인간에 걸 모습과 속 모습의 상태를 반복하는 요소로 그들이 현재 불안한 내적 갈등의 상황임을 표시해준다.

4.2.3 음악

프롤로그가 끝나고 동시에 바로 무 음악으로 1장이 연결된다. 무 음악으로 2분 45초 동안 오브제(사과)의 상징을 무용수들의 호흡과 상황에 맞는 움직임으로 에너지가 끊이지 않도록 이어나갔다. 무용수들이 움직일 때 오브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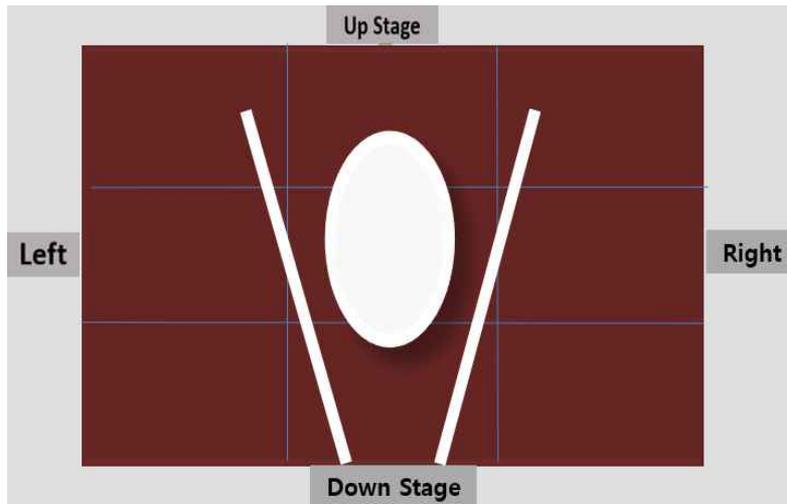
통해 표현되는 감정을 생각이나 사건이 그들로부터 이야기되는 감정의 현실 감 있는 묘사를 위해서 무 음악을 사용하였다. 이같이 양면성으로 대비되는 모습의 집중도를 위해 무 음악의 효과를 사용하였다. 무용수들의 거침없는 죄들의 성격이 밖으로 분출되고 지옥의 타이틀로 만들어진 곡인 “Hodge-sunlight on a Broken column (죽음의 꿈에 왕국)”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전자음악이 나오면서 첫 번째 죄를 나타내며 모습을 보인다. 죄를 즐기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속에서 비트가 강하게 들어가며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는 분위기로 설정한 음악이다. 첫 번째 탐욕의 분위기가 끝나고 그레고리로 알레그리 (Gregorio Allegri)의 “Miserere”가 나온다. 프롤로그와 같은 음악이지만 다른 내용의 가사로 두 번째 죄의식 공간에서 활용하였고 바로 앞에서와 대조되는 음악과 움직임으로 대비적인 효과를 표현하며 복선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1장의 후반부에는 전자기파 BGM으로 사용하고 여자 숨소리 ASMR의 음악으로 변형된 쾌락주의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박자가 없고 무용수들이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4.2.4 무대장치 및 조명



[그림 4-19]. 조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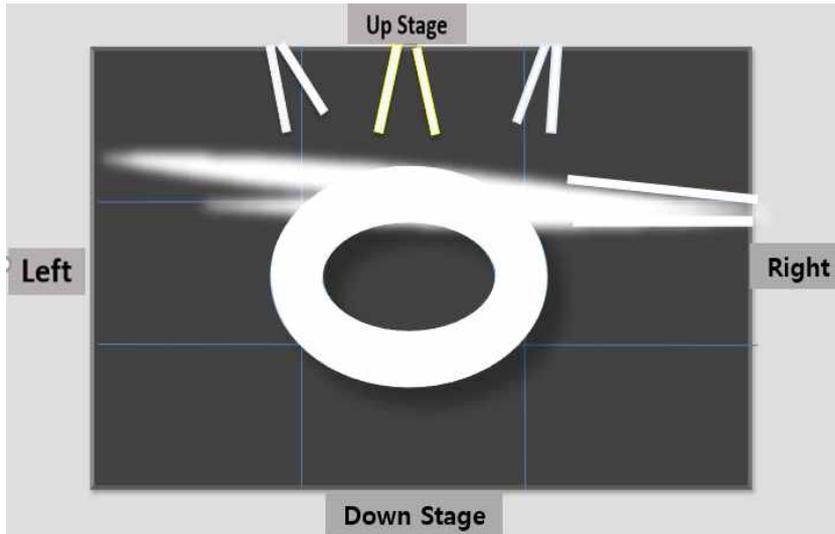
[그림 4-19] 조명은 파란색 전체 조명을 설정하여 하얀색 두 광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일그러져 퍼져나가는 모양을 보인다. 분리된 조명 안에 무용수들의 거침없는 탐욕과 시기의 죄가 밖으로 분출되며 움직임의 변화가 대비적이게 나타난다. 움직임을 느리게 보여주면서 무용수들의 눈빛, 손의 움직임, 심리적 상태 등을 미세한 연기로 죄업의 본성을 부각하였다. “Hodge-sunlight on a Broken column” 전자음악이 나오면서 첫 번째 죄를 나타내며 모습을 보인다. 죄업이 더 특징적으로 보이게 조명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속에서 비트가 강하게 들어가며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는 분위기 속에 음악과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4-20]. 조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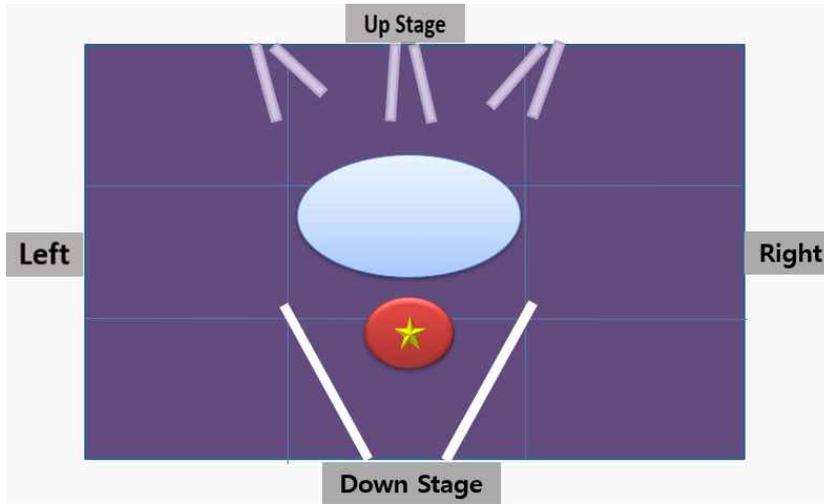
[그림 4-20]에 보이는 것 과같이 전체적으로 피 빛의 붉은 조명으로 나타내었다. 얼굴 정면의 표정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보이며 살인과 자살을 얘기하는 조명으로 죄로 설정된 사과의 탐색을 통해 무용수들은 각각의 욕망의 모습과 탐심과 시기로 발전하여 집요한 감정적인 모습으로 변하여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준다. 사과가 도구(칼)로 컨셉을 잡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인을 하고 죄책감과 자존감 상실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무효화 하려고 자살을 선

택할 때 집중되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풋 조명을 사용하였다. 무대 벽면에는 무용수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보이는 것을 의도하여 앞에 의상에 넣은 각각의 의미적인 설명처럼 살인에 지배받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영적 세계를 조명으로 이미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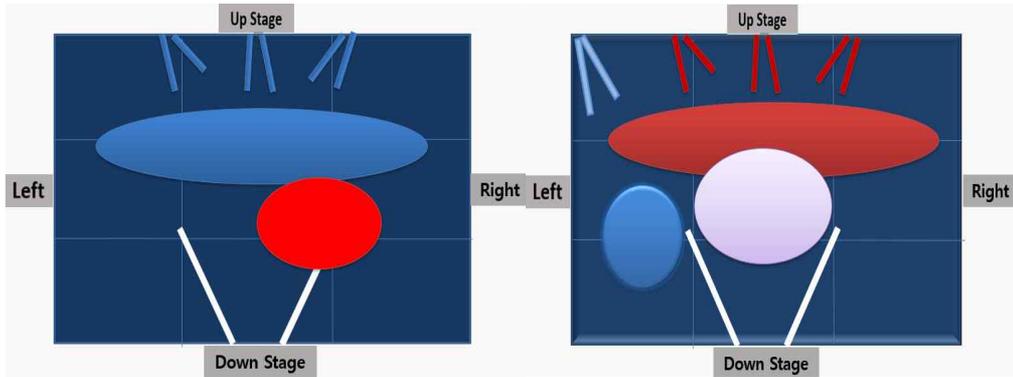
[그림 4-21]. 조명 3

[그림 4-21]의 조명에서는 회개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 공간 안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에 죄의식의 공간도 분리하지 않고 똑같은 곳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두 광이나 싸이드 조명으로 깨끗한 느낌을 주기 위해 하얀색으로 빛을 내었고 포그머신으로 거룩함과 신비로움을 표현하였다. 죄의식의 조명의 모양은 선이 뺏어나가는 느낌의 라운드 모양으로 설정하였는데 한 공간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지금 사는 세상에 의미를 두었다. 이것은 삶에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과 존재에 의미를 두어 이 동그란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얽혀 살아가고 있음에 분리하지 않는 조명 설정을 하였다. 반복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대 센터에 초점을 주어 성격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림 4-22]. 조명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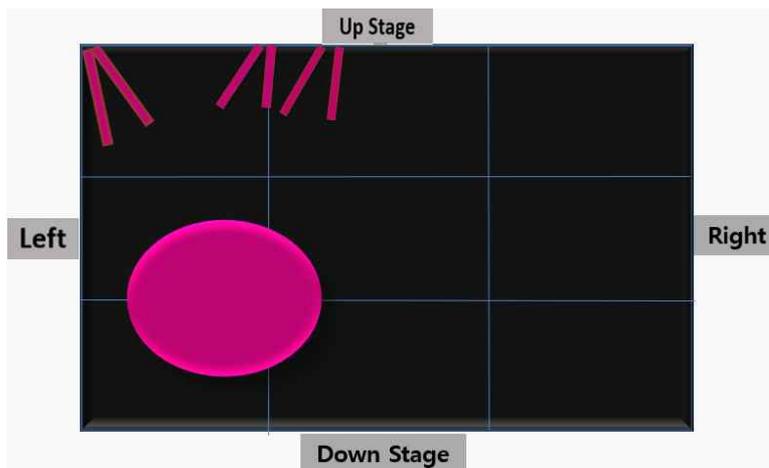
두 번째 죄업 장면에서는 오브제(사과)의 위치는 무대 정 중앙에서 Down Stage에 옮겨져 있다. 사과를 따라 포커싱을 주고 오브제를 상징적이고 탐스럽게 보이기 위해 좁고 강도가 강한 두 광을 설정하여 강하게 표현하였다. 이때 1장 중반부로 갈수록 오브제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언어적 상징성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조명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죄를 말하고자 사과에 형형 각각의 컬러필터로 변화시키고 조명은 넓이로 모양이 바뀌는 효과를 주어 긴장감과 더불어 선악과의 유혹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무용수들은 바닥으로 늘어져 있는 뱀으로 변형이 되고 플로어 움직임 속에 청색과 보라색 계열에 음산하고 스산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무용수 앞에 풋 조명이 사용되어 스모그와 함께 컬러필터로 음침한 보라색과 푸른색 두 광으로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조명의 조도를 낮게 하여 사용하였으며, 풋 조명이 사용되어 벽에 무용수의 움직임이 그림자로 더 확대되어 보여 그로테스크한 효과로 채웠다.



[그림 4-23]. 조명 5

[그림 4-24]. 조명 6

[그림 4-23]과 [그림 4-24]에서는 오브제의 역할이 쾌락을 주는 도구로 설정하여 파란 조명 밑에는 쾌락을 구경하는 움직임으로 집중되어있고 빨간 조명 안에서는 사과로 자신의 욕구를 이용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내었다. 어두운 두 광의 파란빛과 선정적인 붉은색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도 악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성 상품화·산업화에 대한 관계성을 엮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4-25]. 조명 7

[그림 4-25]의 조명은 두 광의 형광 붉은색을 이용하여 죄업의 분위기를 증폭시켰다. 1장 후반부에서는 부르시는(Calling)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음악과 조명으로 그의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두 광의 붉은 조명과 하얀색 조명으로 죄와 죄의식을 표현해주고 강도를 강하게 하여 죄짓는 장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극대화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그들 내면에 어둡게 감추고 있던 죄들을 이제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 자신을 깨닫는 상황이 되도록 청각적 효과와 조명으로 의도하였다. 따라서 극적인 표현을 위해 공간과 움직임과 이미지를 역광과 두 광을 넓고 좁게 또는 조도의 강도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표현하며 1장의 분위기를 꼬집어내고자 하였다.

4.3 제2장 : 하늘에 대고 쓰는 편지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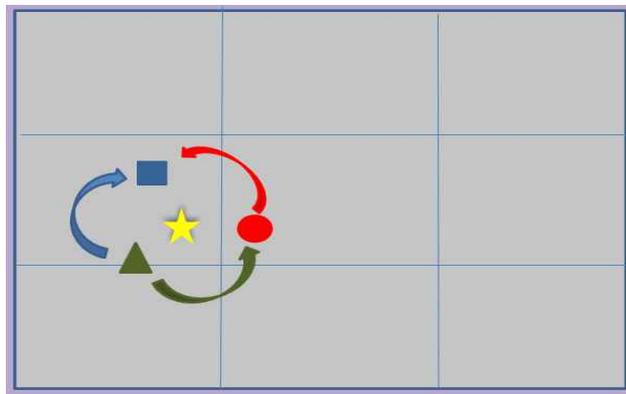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토로(吐露)하며 기도로 올려드린 다윗의 기도처럼 2장은 죄에 묶였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 투영시키며 그들이 하늘에 편지를 쓰는 간절한 마음을 회개의 몸짓으로 표현하는 장이다. 제멋대로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고집불통 우리를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용기 내어 달려가 본다.⁵¹⁾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나약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얘기한다.

51) 이사야 65:2. “제 멋대로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고집불통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 『우리말 성경』.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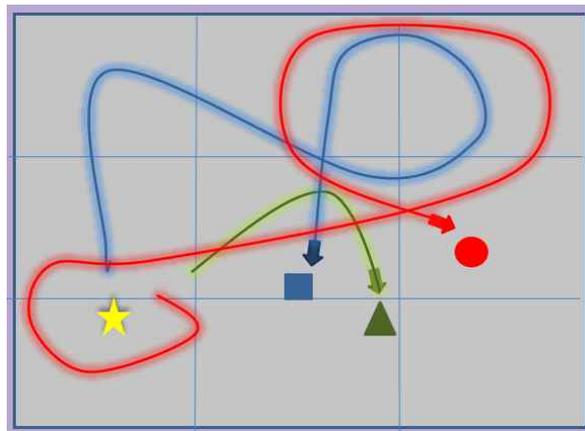
[그림4-26].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림4-27]. 동선 1



[그림4-28]. 빛 가운데 죄악을 발견하는 모습



[그림4-29]. 동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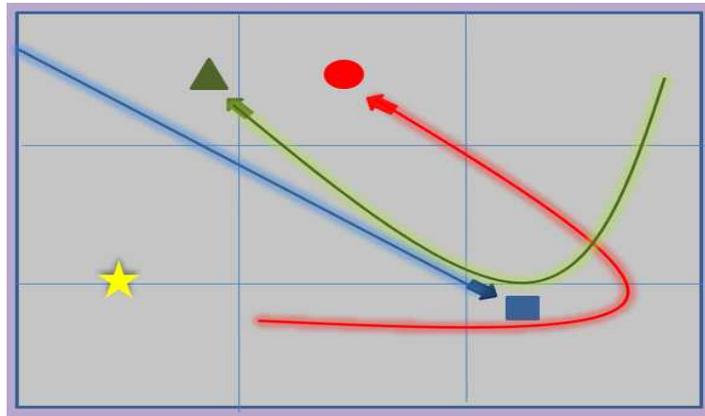
극의 결말에 해당하는 장으로 자유로움과 의지함을 중점으로 몸으로 하는 기도의 표현 방법을 구성하였다. 그림 [4-28]에서는 성가의 가사로 서사적인 표현으로 신의 계시에 반응하는 모습들이다. 앞선 1장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보다 2장은 신체 사용의 가동범위가 넓고, 동선의 사용 또한 넓어졌다.



[그림 4-34]. 옛사람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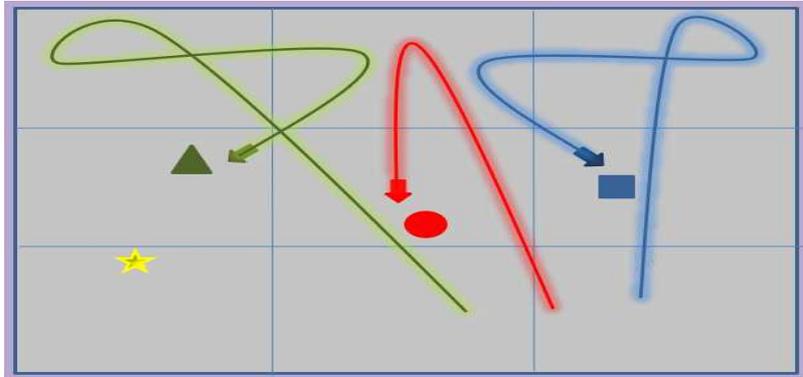


[그림 4-35]. 탄식하시는 성령님



[그림 4-36]. 동선 5

깨끗함이 없는 인간에게 의에 정결함으로 덧입는 예수님의 정결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의 장면으로 설정하였다. 무대에서 달려가는 모습들은 새가 땅에 얼룩진 옷이 새하얗게 깨끗하게 된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고 감사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림 4-40]. 동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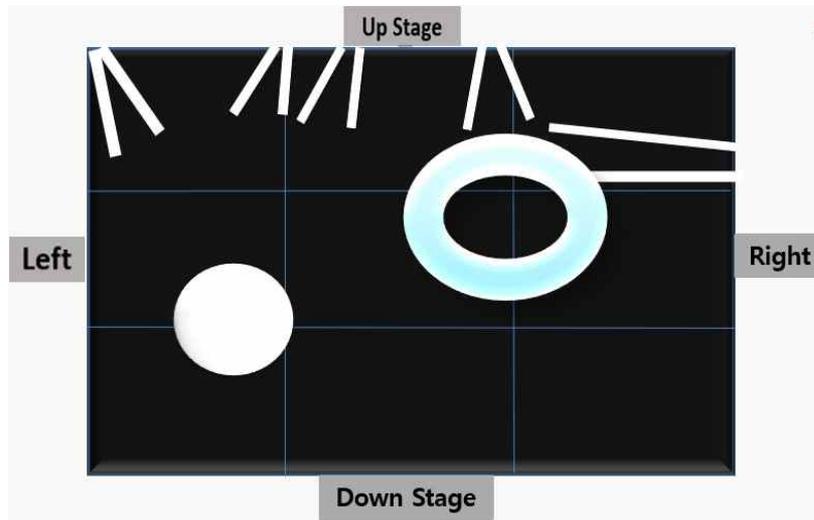
후반부로 가면서 극대화된 움직임과 감정의 떨림은 하늘을 향해 갈망하는 기도 속에 적극적인 상체의 방향성과 다리표현을 중심으로 안무를 구성하였고 앞서 얘기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화하여 표현하였다. UP Stage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형상하는 상체의 움직임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고 무용수들은 각자의 동선으로 Down Stage 쪽으로 튕겨 나오면서 2장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확장된 움직임과 무대 전체를 화이트와 하늘색 톤의 조명을 더 해 새롭게 된 다시 시작하는 자유에 의지를 전달한다. 본 작품 주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장 후반부에 영상 상영을 사용하였다.

4.3.3 음악

1장에 2장으로 장면이 넘어갈 때 음악은 중복되며 1장과는 대조적으로 은유적이며 웅장하다. ‘Fix me Jesus’라는 제목의 성가이며 (Amazing Grace)앨범에 수록된 합창곡이다. 앞선 1장과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며 잔잔하지만, 힘이 느껴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서서히 음악이 고조되고 가장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합창의 절정 부분이 하나님을 느끼는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힘이 저 위에서 내려 오는듯한 감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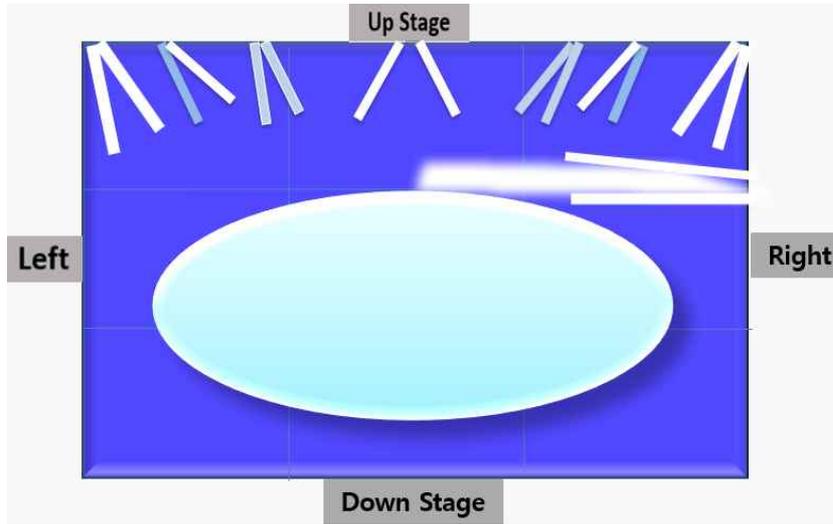
움직임이 있어 연구자는 이 곡에 대해 특별함으로 작품을 연구하였다. 지금 연구자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이끌려 온 여정이고 작품 『Born-Again』 속에서도 누군가의 이끌림으로 거듭남의 과정을 그리기에 충분할 것 같아 이 음악을 선택하였다.

4.3.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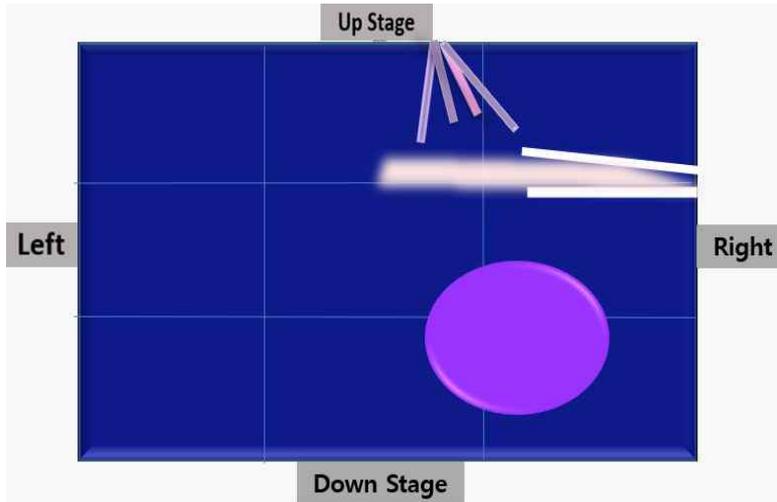
[그림 4-41]. 조명 1

[그림 4-41]에서의 조명은 모양이 다른 두 개의 두 광 조명이 분리되어 있으며 조명의 색과 질감 표현을 위해 포그머신도 계속 사용되어 진다. 무용수들이 Stage LD (Lefe Down)에서 조도를 80% 올려 밝아진 조명에서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Stage RU(Right Up) 사선으로 마련된 기도의 공간으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움직이는 무용수들이 보고 있는 시선과 표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곳에 빛의 방향, 빛, 조도 사용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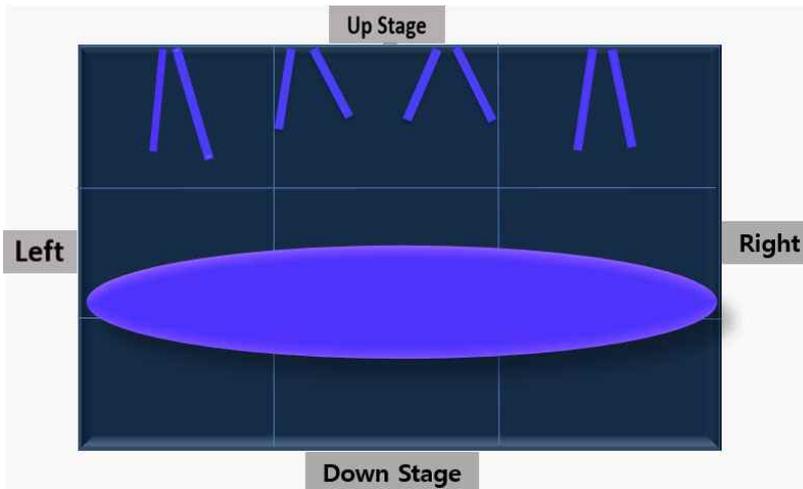
[그림 4-42]. 조명 2

위에 [4-42]의 그림처럼 2장의 조명에서는 면적이 넓고 퍼지는 동선에 따라 전체 무대를 밝혔다. 후반부로 갈수록 두 광과 역광 그리고 입체감을 드러내는 측 광으로 입체감 있는 소망의 느낌을 주었으며, 넓은 두 광으로 바뀌며 감정과 음악과 움직임의 전달이 최고조의 전체 분위기로 이르렀다. 감정표현의 움직임의 확장과 더불어 무대 전체를 화이트와 하늘색 톤의 조명을 추가해 마음의 새 창조로 시작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중반부에 컬러필터 보라색 계열로 Stage RD (Right Down)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극적인 분위기를 넣었고 2장에서만 드러나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의 모습은 웅장한 느낌과 더불어 하얀색 의상이 잘 드러나도록 더욱 빛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림 4-43]. 조명 3

[그림 4-43] 장면은 보라색 조명으로 어두운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려 하였다. 힘들어하는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 애통하며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을 표현한 영적인 기도에 모습을 묘사하였다. 후 광을 이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유도하였고 무거운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그림 4-44]. 조명 4

[그림4-44]에서 마지막에 영상이 나오면서 무용수들이 영상과 함께 느리게 움직이는데 조명은 무대에 비치지만 조도를 매우 낮게 하지는 않아서 무대의 공간도 영상과 이어져 넓어 보이게 하였다. 영상이 끝나고 에필로그로 바로 이어져 있어 따라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이나 표현이 묻히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용수들의 신체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측면 조명을 포커스 평면으로 사용하였다. 분위기는 영상과 비슷한 컬러필터 파란색으로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계속되며 구름 위를 연상시키는 스모그 효과로 신비로운 느낌을 강조하였다.

4.4 에필로그 : 일상의 '작은 부활'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인간의 삶 속에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죄-죄의식-실수-용서-죄-죄의식-'으로 진행되는 패턴이 되어 마치 되풀이하는 론도형식의 순환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의 순환과 비슷하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나는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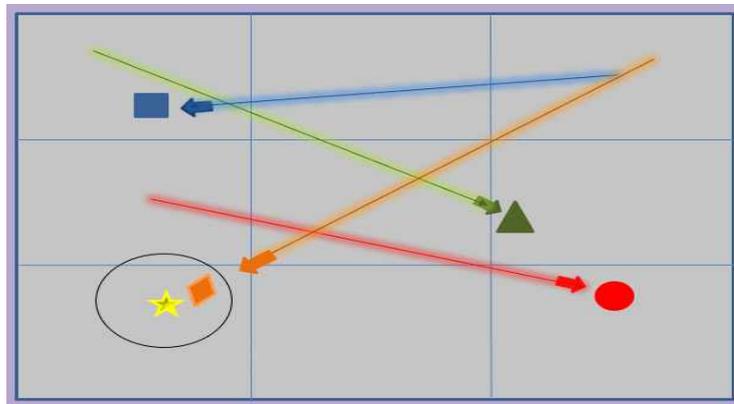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영상이 끝나도 무용수는 계속 천천히 한 목적지로 향하여 걸어간다. 느린 움직임을 하였던 이유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영혼의 공간으로의 초대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육은 땅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길도 걸을 수 있다라는 영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기도 하다. 무용

수들은 각 Stage RD(Right down), Stage LU(Lefe Up)으로 퇴장한다.



[그림 4-45]. 빛을 향해 걷는 자들



[그림 4-46]. 동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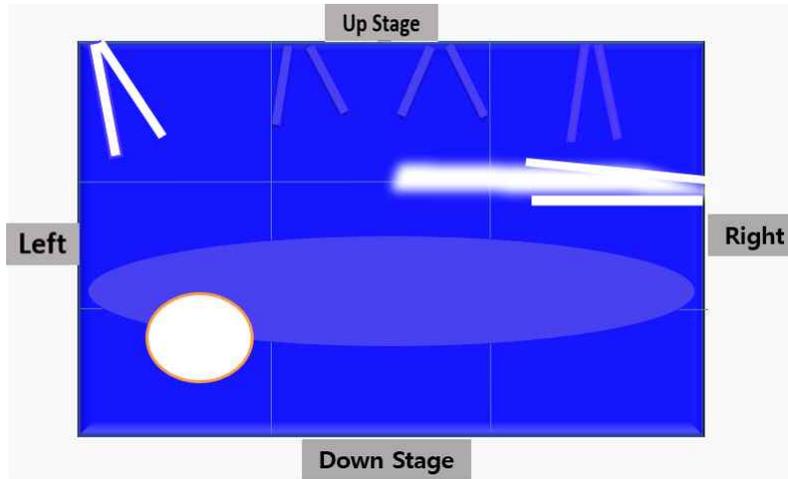
[그림 4-47]. 또 다른 패턴의 시작

그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무용수 한 사람이 Stage RU (Right Up)에서 Stage LD(Left Down)로 사과를 보고 걸어 나온다. 이것은 또 다른 인생에 반복되는 단계의 한 장면이고 조심스럽게 사과를 집어 바라보는 모습과 함께 암전되고 여운이 남는 퇴장으로 마무리하였다. 에필로그에서는 거듭나기 전의 사람과 이제 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묘사하여 세상의 순환을 이미지화시켰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곳에 소망에 의미를 두었고 다시 새롭게 인도되는 삶으로 전환점이 되어 회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양식에 중점을 둔 진행형으로 끝나는 구성이다.

4.4.3 음악

에필로그는 메시지와 집중 감을 높이기 위해 무 음악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주제와 안무자가 표현하고 싶은 의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4.4.4 무대장치 및 조명



[그림 4-48]. 에필로그 조명

에필로그에서는 영상이 끝나고도 포그머신이 계속 작동하고 파란색 두 광조명으로 무대 공간이 드러나면서 무용수들의 형태 움직임이 보일 수 있게 푸른색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오브제(사과)는 하수 다운스테이지에 탑 조명의 빛에 넓이를 움직여 입체감 있게 사과를 또다시 유혹의 상징으로 설정해 두었고 남자 무용수가 하수 다운스테이지를 향해 걸어갈 때 상 측광(high side light)을 사용하여 걸어 나오는 무용수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해주었으며 마지막 탑조명으로 마무리하였다. 본 작품 주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결말 2장 마지막 부분부터 에필로그까지 이어지는 영상을 시도하였으며 연구자가 생각하는 「Born-Again」의 하늘나라의 시각성을 끊어지지 않고 현실로 가져오는 것을 염두하고 현재 진행형의 구조로 막을 내렸다.

V. 결 론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 무용 「Born-Again」에 대한 분석 연구다. 작품의 의미와 구조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독교적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투영시켜 사실적인 모습 들을 표현 하고 이를 위해 연극적 현대무용 성향의 표현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Born-Again」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거듭남’을 주제로 담아 연구자의 견해와 기독교적 관점을 시각화하여 재해석하였고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관심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에 징검다리과 같은 거듭남이란 질문으로 시작되어 공연으로 마쳤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 특별함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시각적인 잔상과 연구자 개인적 신앙의 영역에서 일치하는 부분에 영감받아 기독교 공연 예술로 확장 시켰다. 20세기 초, 안무가 루스 세인트 데니스는 춤에 종교성을 명백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하여 활동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정신세계의 신비한 경험을 표현하고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듭남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었고, 「Born-Again」의 추상적인 주제와는 다르게 관객들이 봤을 때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으로 함축적인 시각화로 나타내었다. 수없이 반복되어 이어지는 죄 속에서도 나약한 인간이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작품의 메시지에 의미를 부각하여 의도에 방향성을 현실에 모습으로 찾아내 인간상의 일면에 모습들이 표현되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마음으로 내적 묵상을 담아 녹아내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중점으로 안무 구성 및 표현 방법을 구상하였다.

본 작품은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1장과 2장 에필로그 순으로 진행되며 실수와 죄의식 과정에 반복적인 패턴의 형태를 가진 론도형식(Rondo

Form)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구조와 작품의 성격적 배경, 모티브, 음악, 오브제, 의상, 영상, 조명으로 현대무용을 종교적인 특성에 맞추어 포함하여 기독교적 작품의 의미와 의도에 대해 종합예술의 다양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생각하는 거듭남을 해석 및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장면에게 맞게 안무와 성격을 부여하였고, 주제와 맞는 음악선정과 영상의 활용으로 분위기의 적절한 표현을 극대화로 채웠다. 또한 인간의 죄의식 속에 나타나는 자존감의 상실과 자신이 저지른 죄를 무효화 하려는 욕망을 나타내고, 지극히 작은 욕심의 형태가 발전하여 사회적 관계성에서도 큰 악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그려보았다. 인간의 이중성을 포함하여 오브제(사과)의 상징적인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후반부에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게 될 사람, 또는 회개 자와 죄에 빠진 사람을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의 상상을 유도하고 열린 결말이 되길 원했다. 연구 초기에는 죄를 짓는 공간과 회개하는 공간사용을 분리할 계획을 하였으나 오브제 활용의 추가로 인하여 주제의 명확함과 무용수들의 심리적 상황들의 빠른 전개를 위해서 프롤로그와 1장 중반부까지 공간사용을 제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무대의 상하 대비 가로와 세로 길이가 유독 길어 작품의 전개가 빠르게 전개되어 무용수들의 등·퇴장의 시간적 계산이 필요하였고 영상 투사 비율의 조정이 어려워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자는 오래전부터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었고, 보이지도 알 수도 없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기독교적 천국의 이미지를 본 작품을 진행하면서 선명하게 그려나갈 수 있었다. 특히 에필로그에서 빛이 열리고 강한 빛이 비취는 하늘의 영상과 그곳으로 걸어가는 무용수들의 장면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천국으로 걸어 나아갈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신앙고백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악하고 죄악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넓고 깊이 있는 기독교 예술무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 강동현. (2019). “요한 공동체의 ‘위로부터의 거듭남’ 이해-요한복음 3:1-8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 김경남. (1997). “미국 현대무용계에 나타난 흑인 차별적 시각과 그 극복 움직임에 관한 연구 -Alvin Ailey의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경복. (2000). “현대무용 작품에 나타난 종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마사 그라함 과 호세 리몽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정. (2004). “영화 의상에 표현된 색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주. (2013). “현대무용사에 나타난 오브제 사용의 의미-충남대학교 대학원. 모던댄스 이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송설. (2013). “감상을 통한 악곡 형식 이해 지도- 론도, 소나타형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정훈. (2004). “앨빈 에일리(Alvin Ailey) 작품에 내재된 종교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 「Revelations」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라병원. (2008). “산상설교에 나타난 주기 도(마 6:9-13)의 신학적 의미”. 장로회신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숙. (2004). “현대무용사적 고찰에 의한 기독교 무용가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2005). ““Passacaglia in C Minor”에서의 음악과 관련된 안무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 무용학회 논문집」.
- 서성록. (2011).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연구”. 「신앙과 학문」.

- 양재진. (2006). “종교적 성향을 가진 미국 현대무용 작품의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초롱. (2002). “한국 기독교 무용의 현황과 발전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현. (2008). “Gregorio Allegri의 습창곡 『Miserere mei』의 分析研究”. 전북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주. (2009). “Alvin Ailey의 작품 "Revelation"에 나타난 기독교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영. (2002). “한국 선교 무용의 실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희. (2021). “성령의 일하심과 성도의 실천과의 관계”. 칼빈대학교 신학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필. (2009).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 사상”. 석사 학위 논문. 서울 성경
신학 대학원.
- 정의숙. (2001). “앨빈 에일리(Alvin Ailey) 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한 무용학회 논문집.
- 주은혜. (2008). “춤을 통해 본 기독교 문화와 교육적 과제”. 목원대학교 신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아. (2018). “시기심을 마주하는 심리적 공간에 대한 고찰 : 멜라니 클라
인의 관점에서 본 가인과 요셉 이야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부 석사학위논문.

2. 단행본

- 박영애. (2005). 『기독교 무용사』. 서울:한성대학교 출판부.
- 반주은, 정의숙. (2000). 『현대무용 인물론』. 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송종건. (1998). 『무용학 원론』. 서울: 도서 출판 금광.
- 쿠르트 작스. (1937). 『세계 무용사』. (김매자, 역). 서울 출판사.
- 하용조. (2003). 『바람처럼 불처럼』. 사단법인 두란노 서원.

Daniel Migliore. (1994).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 (장경철, 역).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2. 연속간행물

곽정임, 전요섭. (2017). 기독교인의 성 중독 회복을 위한 상담방안.

「한국 복음주의 상담학회」.

김복희. (2002). 흑인영가(Negro Spirituals)와 기독교의 이해.

한영신학대학교. 「학술 저널」.

김영한. (2019). 하나님 나 ianity and Existentialists . 「기독교 학술원」.

박창영. (2005).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임재의 기도. 한세대학교.

「영상 신학연구소」.

박영애. (2006). 중세시대 교회 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_____. (2011). 무용 요법에서의 음악사용. 「대한 무용학회」.

박현신. (2000). 의상작품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신 호 . (2007). 조명을 통한 무용 예술의 무대 공간 시각화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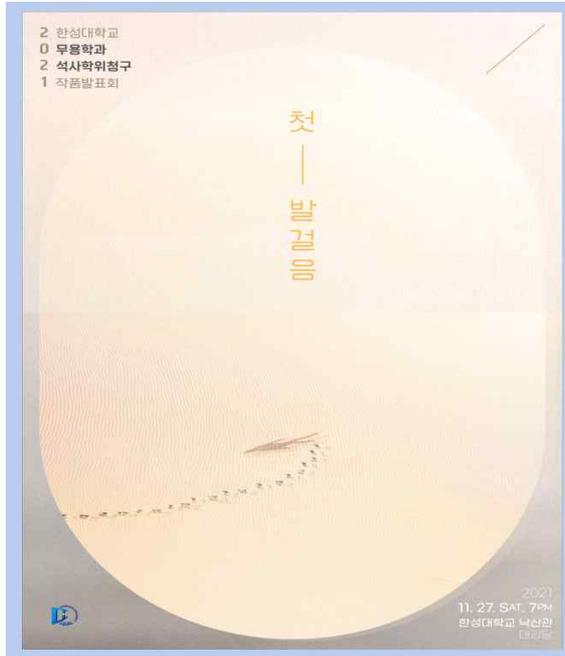
「한국 무용학회」.

부 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 명	Born-Again
일시	2021년11월27일 토요일 오후7시
장소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
안무	하 진선
음악	Gregorio Allegri- "Miserere", "Hodge-sunlight on a Broken column", 'Fix me Jesus' (Amazing Grace)
출연	하 진선, 김 주은, 장 미희, 차 시원
영상연출	김 지혜, 하 진선
의상연출	손 수진, 하 진선
조명감독	주 영석
사진영상	Hanfilm김 정환
주최	한성대학교
소요시간	15분50초

2. 공연 프로그램





박추선

작가 Born-Again

작품 내용 신원이지만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다시 처음 걷고 또 걷는 이야기.

"언젠가는 끝까지 처음 걷고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준다."

평론 'Born-Again'은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한 이야기지만 이후 많은 재해석, 통찰과 통찰이 되고 궁극에 안락하다 이야기하는 인간 삶의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다. 인간에 관하여 깨달을 수 있는 저자들의 특정한 통찰을 통해 그려지고 그려 내면 안락의 통찰이 반복되게 되지만 '인간'의 실존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고자 했다. 그리고 나처럼 그려진 이야기로 그려지고 그려지는 것들 속에 기 도는 나타내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특징

'Born-Again' 즉 '첫발걸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한 종교적 영성에 대해 거듭난 후 인생을 새롭게 인식할 관점(작품)을 되살린 것 중의, 영적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작품은,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 어느 언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그 전환은 무엇일까요?"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영적으로도 무엇을 중의하여 회개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함이 생겼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순간 등 영성의 전환점이 가까이 있다.

기독교 사설가 C.S. 루이스는 "영혼을 재탄생 구하고 다시 일어나 처음 '신앙'이라 '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영적의 길에서도 용기있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영혼을 영혼을 되살린다" "이런 사랑과 영혼을 재탄생 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김수연



박미화

지도교수 박영애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Work, 『Born-Again』

Ha, Jin-Sun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Christian artistic creation 『Born-Again』 that aims to analyze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the the artistic creation. The researcher was inspired by the music and lyrics from ‘Fix me Jesus’ in Alvin Ailee’s first section of 《Revelation》 and felt God’s ‘presence’, ‘creation’ and ‘will’ through the work and movement of the Holy Spirit.

The image of prayer in the work of the choreographer provides deep contemplation and through creation of 『Born-Again』, the theme of human repentance and God's forgiveness was confirmed. This research also seeks to express the theme that the true liberation of mankind comes from God's forgiveness through Jesus Christ.

『Born-Again』 extends beyond the Christian faith as it interprets and

symbolically depicts the process of humans being born again despite the countless repetitions of 'wrong-doing-guilt-forgiveness-sin-repentance' after being bor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hope that it would give the readers an opportunity to contemplate their own relationship with God by encouraging them to empathize through their imagin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choreography of 'Fix me Jesus' was analyzed in context of religious meaning. Additionally, in order to incorporate a more digestible analysis of the abstract concept of 「Born-Again」, this research referenced other Christian-related choreographic work, including videos of the choreographers, Christian magazines, and other relevant material in addition to the academic literature. The composition «Revelation» consists of a prologue, two sections, followed by the epilogue. The main analysis focuses on the content, motif, lighting, music, movement, costume, and the video of the choreography through the flow of different viewpoints.

The prologue was intended to capture the overall content of the work in an intuitive way through expression, and the props were used to elicit the attention and interest of the audience. Section 1 contrasts the place of sin and the place of prayer through alternating patterns which serve to express in the form of a double image the conflicting human emotions toward forgiveness. The use of continuous body contact of the performers is utilized to express the conflicting human emotions. Section 2 portrays the inability of human beings to resolve their own sins and the body language and movement captures the reflecting and reminiscing emotions. The use of the body language further clarifies the flow and theme of the work. Additionally, the internal psychological conflict of processing sin and guilt was portrayed through the usage of lighting and dramatic movement which led to the delivery of the theme and the conclusion of

the work. The epilogue was set to express the meaning of the repeated pattern of sin and remission circulating in human life through the imagery of a weak human being.

Through 「Born-Again」, the researcher was able to reflect and contemplate upon the meaning and the voice of God when he created man in the beginning and when God said “It is good”. The researcher also seeks to symbolically express the life of Hosea the Prophet as he guided the people toward God as God awaited them with love. Hope is illustrated as we are always welcomed to return to God and gain salvation.

【Key Words】 Christian creative Dance, Convincement, born Again, Repentance, Forgiveness, Revelation, Recovery